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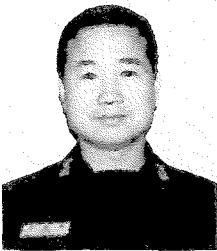
駐韓美軍에 관한 研究

(1990年代 韓·美 安保 懸案을 중심으로)

韓·美聯合司 情報參謀部

*

中 領 田 一 平



目 次

第1章 序論

第1節 研究의 目的

第2節 研究範圍와 方法

第2章 韓·美 安保協力과 駐韓美軍

第1節 韓·美 安保協力의 歷史的 背景

第2節 駐韓美軍의 性格과 役割

第3章 韓·美 聯合 指揮體制와 作戰統制權

第1節 作戰統制權의 變遷過程

第2節 韓·美聯合軍司令部와 作戰統制權

第3節 作戰統制權 引受方案

* 해군사관학교 및 해군대학 졸업, 美 해군 심해잠수학교 수료 및 해난구조대장 역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및 단국대학교 박사과정 재학(現)

第4章 駐韓美軍의 撤收와 防衛費 分擔

第1節 駐韓美軍 撤收史

第2節 最近 駐韓美軍 減縮 및 役割 變化

第3節 防衛費 分擔

第5章 駐韓美軍과 核 問題

第1節 韓國과 核 環境

第2節 駐韓美軍과 核

第3節 北韓의 核 開發

第4節 韓半島의 非核化

第6章 結 論

參 考 文 獻

表 目 次

〈表 2-1〉 駐韓美軍 戰力 現況

〈表 2-2〉 南·北韓 軍事力 比較

〈表 2-3〉 駐韓美軍의 經濟的 寄與

〈表 3-1〉 韓·美 聯合軍司令部 指揮體系

〈表 3-2〉 韓·美 聯合軍司令部 機構圖

〈表 4-1〉 年度別 駐韓美軍 現況

〈表 4-2〉 3段階 駐韓美軍 再調整 計劃

〈表 4-3〉 駐韓美軍 支援 現況(1988년)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

韓國과 美國이 국교를 맺은 이후 110여年の 세월이 흘렀으며 그동안 世界史의 변화에 따라 韓·美 關係도 많은 변화를 거듭하였다. 2차 세계대전후의 韓·美 關係는 주로 안보 및 경제협력 관계가 지속되어 왔으며, 안보관계에 있어서 주한미군은 그 핵심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이 땅에 주둔하게 된 駐韓美軍은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 많은 役割을 했고, 그후 韓·美 同盟關係 維持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駐韓美軍은 韓半島에서의 전쟁 억제에도 기여함은 물론, 또한 美·蘇 冷戰體制下에서의 동북아 평화 유지에도 중요한 役割을 해 왔다.

駐韓美軍이 韓半島 防衛 및 東北亞 平和維持에 기여한 반면 반대급부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들도 많이 나타났다.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韓·美 安보懸案과 未來의 安보關係에 관해서 논의하는 韓·美 年例 安보協議會(SCM) 및 韓·美 軍事委員會(MCM)와 韓·美 政府 및 軍事關係官간의 협조를 통하여 긴밀한 韓·美 安보協力體制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韓國의 成長과 發展 및 國內的 要求, 美國의 財政 赤字와 國防豫算의 削減에 따른 美軍 減縮 등으로 인해 韓·美 安보關係는 많은 현안 과제를 남기고 있다. 지금까지 駐韓美軍은 韓·美 安보關係에 있어서 주도적인 役割을 해 왔으나 이제 점차 지원적인 役割로 전환되어야 하며 韓國의 安보는 韓國軍이 주도해가는 自主國防의 目標을 향해서 진일보해야 되는 시기이다.

최근 蘇聯의 沒落과 東歐의 自由化 등, 일련의 국제정세 변화에 비추어 韓·美 安보 關係에 있어서 주요 현안인 作戰統制權, 防衛費 分擔, 駐韓美軍 撤收 및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核 問題 등에 관하여 고찰하고 바람직한 韓·美 安보協力 方案을 제시하는 데에 본 論文의 目的이 있다.

第 2 節 研究範圍와 方法

본 論文은 韓·美 安保協力の 역사적 배경과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駐韓美軍의 役割 變化 및 韓·美 安保에 있어서 현안과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敘述的, 比較 分析的, 歷史的으로 고찰해 보았다.

第1章은 서론으로서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第2章에서는 韓·美 安保協力 關係를 歷史的으로 고찰하고 駐韓美軍의 性格과 役割을 살펴보았다.

第3章은 駐韓美軍과 作戰統制權에 관한 변천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현재의 韓·美 聯合防衛體制를 分析한 후, 장차 우리 韓國軍이 作戰統制權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第4章은 駐韓美軍의 撤軍史와 美國의 戰略變化 및 議會의 政策變化에 따른 駐韓美軍의 부분적 감축문제, 이와 관련하여 美國의 財政赤字 및 駐韓美軍의 役割變化와 관련된 防衛費 問題를 分析하였다.

第5章은 駐韓美軍과 核問題로서 韓國과 核環境, 駐韓美軍과 核 그리고 北韓의 核開發 問題에 대한 억지방안 및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해서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第6章은 結論으로서 위에서 논한 韓·美 懸案 問題를 총정리하고 駐韓美軍의 장래와 미래의 韓·美 安保협력 關係를 전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國際政治 및 韓國과 美國의 國防政策, 軍事戰略 그리고 駐韓美軍과 관련된 신뢰성 있는 各種 書籍, 최근에 발간된 政治, 外交, 軍事問題에 관한 刊行物, 學術討論會 發表 內容, 雜誌, 新聞, 統計資料 등을 이용하여 문헌조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 分析하였다.

第 2 章 韓·美 安保協력과 駐韓美軍

지난 반세기동안 韓·美關係는 安保關係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韓·美 聯合防衛體制는 美軍이 유엔군의 주축으로서 韓國戰爭에 참전하고, 1953년 韓·美相互防衛條約의 체결을 통해 양국간 동맹관계가 수립된 것에서 비롯하여 韓·美 年例安保協議會議 및 韓·美 聯合軍司令部 創設 등을 통하여 긴밀히 발전되어 왔으며,

駐韓美軍은 현재에도 韓半島 平和維持 및 東北亞 勢力均衡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韓·美 聯合防衛體制는 韓半島에서 효과적으로 전쟁을 억제함으로써 우리 安保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최근 韓半島 安保環境과 兩國의 對內·外的 여건 변화에 따라 韓·美 聯合指揮體制 측면에서의 변화와 아울러 양국간 安保協力關係도 호혜적인 쌍무관계로 발전되고 있다.

第1節 韓·美 安保協力の 歷史的 背景

韓國과 美國은 구한 말 수교 이후 일반적인 외교관계를 맺어왔으나 2次大戰 後 일본의 패망과 함께 美軍이 韓國에 진주하면서 韓·美 安保 협력관계는 일대국면을 맞게 되었다.

日本이 2차대전에서 패배, 무조건 항복을 하자 美軍과 蘇聯軍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각각 南·北韓에 진주해 日本의 武裝解除를 말음으로써 지난 40여년간의 韓·美 軍事同盟關係가 비롯된 것이다.

45年 9月 8日 美 第24軍團과 7師團 병력이 오키나와로부터 인천항에 도착하여 日本軍의 武裝解除와 韓國에 대한 軍政을 실시하게 되었다.¹⁾

특히, 韓國戰爭時 美國의 介入으로 양국관계는 물론 세계전쟁사에 남을만한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韓國戰爭 이후에도 韓國과 美國은 軍事同盟 관계를 유지하며 美國의 支援은 韓國軍의 체계 확립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韓國戰爭 초기인 1950年 7月 14日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유엔군司令官이었던 맥아더 장군에게 공한을 보내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移讓했다. 이것이 그 동안 몇 차례의 변화과정을 거쳐 오늘날 韓·美聯合司令官에게 주어져 있는 作戰統制權으로 이어져 왔다.²⁾

美軍은 韓國戰爭에서 54,000명의 전사자와 33,600여명의 중상자를 포함, 15만여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북괴군을 격퇴함으로써 美國과는 ‘혈맹 관계’를 맺게 되었다.³⁾

1) 하영선, “韓半島 平和定着과 駐韓美軍”, 「展望」 1988年 9月號 (서울 : 社會發展研究所, 1988), p. 23.

2) 東亞日報社, 「駐韓美軍」(서울 : 東亞日報社, 1991), p. 15.

3) James P. Finley,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971~1982(Seoul : Secretary Joint Staff, HQs, USFK/EUSA, 1983), pp. 88~89.

韓國戰爭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美國은 休戰協定을 추진하게 되었고, 당시 韓國政府는 이를 적극 반대하였다. 이에 美國은 모든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韓國의 統一을 실현하기 위한 努力의 계속,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을 경우 韓·美防衛條約 締結, 韓國의 復興을 위한 經濟援助 계속⁴⁾ 등을 들어 韓國政府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韓·美防衛條約의 締結로 韓國의 安全과 平和를 위해 美國의 확고한 保障이 休戰協定 以前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였다.⁵⁾

韓國戰爭 중 中共軍의 韓國戰 參戰은 戰爭의 性格을 UN軍 對 北韓軍의 戰爭으로부터 UN軍 對 共產軍의 戰爭으로 바꿔 놓았다.

유엔군과 중공군은 공세와 수세를 거듭하면서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공산군은 군사적인 승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소련이 UN代表 말리크(Yokov A. Malik)를 통해 休戰 협상을 제의하게 되었다.⁶⁾

1951年 7月 10日 全 世界가 주시하는 가운데 공산군측의 통제지역인 개성에서 休戰會談이 개최된 이후 10次에 걸친 회담 끝에 7月 26日 協議事項 採擇, 軍事分界線 確定, 停戰과 休戰의 實行에 관한 구체적 협정, 捕虜에 관한 협정, 雙方과 관련이 있는 各國 政府의 건의사항 등에 관한 勸告 등 5個의 休戰會談 議題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休戰에 임하는 韓·美 兩國의 立場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美國은 1950年 11月 대통령 선거에서 韓國戰爭 休戰을 공약으로 내세운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戰爭의 擴散보다는 명예로운 平和를 希求하면서 1950年 2月 初 韓國을 방문하였고⁷⁾, 韓國軍을 20個 사단으로 증강시키면서 美軍을 撤收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공산측이 조기 휴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자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⁸⁾ 한편 韓國은 政府樹立 後 南北統一을 國家 目標로 정하고, 韓國戰爭을

4) Dwight D. Eisenhower, Mandate for Change, Garden City, N.Y : Double day and Company, 1963, p. 182.

5)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編, 「國防部 條約集, 第1輯」(서울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1), pp. 653~655.

6) 金陽明, 「韓國戰爭史」, (서울 : 일신사, 1988), pp. 22~24.

7) T.R. Fehrenback, This Kind of War(New York Macmillan Company, 1963), pp. 633~635.

8) Dwight D. Eisenhower, The White House Years : Mandate for Change, 1953~1956 (New York : Double day, 1963), p. 180.

國土統一의 기회로 판단하고 統一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어떠한 休戰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休戰協定 조인이 임박해져가던 1953年 6月 5日 이대통령은 聲明을 통해 休戰協定 締結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韓·美 相互防衛條約 締結과 經濟援助를 요구하여 협상을 전개하는 한편 1953年 6月 18日 UN軍 관할하에 있던 반공포로를 전격적으로 방면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美國은 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비난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는 한편, 韓國의 要求에 상당 부분 양보함으로써 휴전협정을 보장하는 韓國의 約束을 받아냈다.

즉, 1953年 6月 25日부터 18日동안 미국의 로버트슨 特使는 韓國의 이승만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하여 相互防衛條約 締結, 長期 經濟援助, 20個 사단과 海·空軍의 증강, 전투중지 현장에서의 긴밀한 협조 등을 韓國에 약속한 대신 韓國이 休戰을 반대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것이다.⁹⁾

이를 바탕으로 韓·美 兩國은 지금까지 연합방위체제의 기본틀을 형성해 온 韓·美 相互防衛條約을 53年 10月 1日 워싱턴에서 조인하고 1년후인 54年 11月 18日부터 이를 발효시켰다.¹⁰⁾

韓國戰爭이 끝날 무렵 미군은 陸軍 7個 師團, 海兵隊 1個 師團 등 모두 32만명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북한에서 중공군이 철수하는 것과 때를 맞추어 2개 사단만 남기고 단계적으로 철수를 시작했다.

이후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 방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라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韓國 政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73年 1月 駐韓美軍 보병 2개 사단중 7사단을 철수하고 2사단만을 남겨 놓았다. 이와 함께 미군은 휴전선 일대에 배치돼 있던 미군을 후방으로 재배치하고 韓國軍에 휴전선 155마일 방위 임무를 모두 넘겨주고 다만 관문점 일대(군정위 본부 구역) 경비만을 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닉슨에 이어 카터 대통령도 77年 1月 20日 취임과 동시에 駐韓 美 地上軍 撤收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였으나 駐韓 美8軍 참모장 실글러브 소장의 철군반대 발언 파문

9) 溫暢一, "美國 對韓 安保介入의 基本姿勢, 1945~1953" 「國際政治論叢」 제25집, (1985).

10) 國防部, 「國防條約集」(서울 : 國防部, 1982), pp.154~157.

등 軍部와 議會의 반발에 부닥쳐 상징적인 철수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76년부터는 韓·美 聯合 合同 軍事訓練인 팀스피리트가 매년 한 차례씩 실시되기 시작했고 78年 11月 7日 용산 영내에 韓·美 聯合軍司令部가 탄생하였다.

駐韓美軍은 45年 해방과 더불어 이 땅에 진주한 이후 이같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지만 기본적인 사명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즉, 韓半島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억지력으로서의 기능과 만약에 전쟁이 재발할 때는 이를 격퇴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¹¹⁾

駐韓美軍司令部는 전에 7가지 직책을 동시에 겸하고 있었다. 즉 韓·美 聯合司令部, 유엔군司令部, 한·미 연합사 地上構成軍司令部(GOC), 유엔사 地上構成軍司令部, 駐韓美軍司令部, 美8軍司令部, 駐韓美軍선임장교가 그것이다.¹²⁾ 이 중 한·미연합사 지상구성군사령관(GCC) 직책은 1992. 12. 1부로 연합사부사령관인 한국장성에게 인계하였다.

駐韓美軍은 1945년에 이 땅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1단계(45~49년)는 일본의 무장해제 및 軍政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했고, 제2단계(50~53년)는 침략군을 격퇴하기 위해 많은 피를 흘렸으며, 3단계(53년 휴전협정 이후 현재까지)는 평화유지 기능을 담당해 왔다.¹³⁾

이같은 駐韓美軍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국방비의 지출을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防衛能力 向上과 經濟發展이라는 큰 소득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40여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國防이 크게 신장되면서 특히 80년대에 들어 駐韓美軍이 이 나라의 자주적 民主化에 끼치는 영향을 회의적, 부정적으로 보는 시간이 대두됨과 동시에 최근에 民主化의 흐름을 타고 韓·美 軍事協力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駐韓美軍의 役割 변화와 美國의 전쟁 자동개입 가능성과 防衛費의 과중한 부담 등을 이유로 내세운 駐韓美軍 減縮 또는 撤軍 論議가 되어 왔으나 이에

11) 東亞日報社, 前掲書, p.16

12) 國防部, 「韓半島 및 東南亞 軍事情勢 資料集 1988. 4~1989. 3」(서울 : 國防部, 1989), p.372.

13) 東亞日報社, 前掲書, p.17.

대한 韓·美 兩國 政府의 公式 立場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韓國 政府와 國民이 원하는 한 駐韓美軍은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 일관된 공식 입장이다.¹⁴⁾

駐韓美軍 撤收 問題 외에도 용산기지 移轉, 韓·美 相互防衛條約 및 行政協定 改正, 作戰統制權 移讓, 防衛費 分擔, 核武器 問題 등이 이미 양국 정부간 협상이 진행중이거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은 韓·美간의 주요 관심사는 주로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第 2 節 駐韓美軍의 性格과 役割

韓·美 安保協力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駐韓美軍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韓半島의 安保와 美國의 세계전략적인 측면에서 駐韓美軍의 役割이 무엇인가를 규정해 볼 필요가 있다.

〈表 2-1〉 駐韓美軍 戰力 現況

군 별	부 대	병 력
육 군 (8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보병사단(미 2사단) - 13,900명 • 1개 MLRS 대대 	29,100
공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전투비행단(51, 8전투비행단) : 항공기 174대 - 5개 전투비행대대 : 24F-4E, 96F-16, 24A-10 - 1개 전술항공통제전대 : 24, OA-37 - 1개 탐색구조대대(MAC) : 6HH-3 	11,200
해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해군 지원 세력을 위한 협조부대 	1,000

* 출처 : CSIS/KID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Future of ROK-US Security Relations, William J. Taylor, "Challengers to US-ROK Security Relations"
(서울 : KIDA, 1988), p.9.

14) 「東亞日報」, 1990年 1月 30日字

우선 規模面에서 駐韓美軍은 <表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병력 約 4만명으로 美 8軍司令部 예하에 동두천 일대에 배치된 美 2師團과 7空軍司令部 예하부대의 51 및 8戰術飛行團 병력 11,000명 및 전투기 174대로 구성되어 있다.

駐韓美軍의 戰力構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¹⁵⁾

첫째, 駐韓美軍은 戰略軍인 동시에 戰術軍의 성격을 갖는다. 병력면에서 본다면 4만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술군으로 볼 수도 있으나 空軍司令部, 戰術飛行團 뿐만 아니라 유사시 증원해군인 7함대의 수용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戰略軍이다.

둘째, 駐韓美軍은 종합적 성격을 갖는 부대구조를 갖추고 있다. 다연장 미사일(MLRS), 미 육군 전술 유도무기체제(ATACMS) 및 공군과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綜合的 性格의 軍隊라 할 수 있다.

셋째, 최근 철수된 것으로 밝혀진 核武器가 현재는 韓半島內에 배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사시 즉각 核雨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駐韓美軍의 성격은 다음 세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駐韓美軍은 形式論理로 볼 때 韓半島의 平和와 韓國 防衛를 위하여 유엔에서 파견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¹⁶⁾ 또한 韓·美聯合軍司令部는 韓國軍에 대한 作戰統制權을 갖고 있다.

둘째, 韓·美相互防衛條約에 따른 집단방위를 위한 주둔군 즉, 동맹군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駐韓美軍이 형식논리로 유엔군의 일부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停戰協定 이후 맺어진 韓·美相互防衛條約에 의해 북한 공산집단의 침략으로부터 防衛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駐韓美軍은 韓·美聯合軍司令部를 설치하여 유사시 韓·美 聯合으로 作戰을 수행하게 된다.

셋째, 駐韓美軍은 美國의 세계전략 중에서 아시아 전략의 일부로서의 성격을 갖

15) Ralph N. Clough, Deterrence and Defence in Korea : The Role of US Forces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1978), (國防大學院역), 「駐韓美軍에 관한 研究」(서울 : 공화출판사, 1979), pp.16~17에서 재인용

16) 金光輝, “安保·統一問題와 駐韓美軍의 位相”, 「現代公論」1989年 5月號(서울 : 정문연구회, 1989), p.265.

는다. 세계전략의 맥락에서 볼 때 駐韓美軍은 소련을 봉쇄하는 미군의 중요한 태평양 전진기지의 전개 전력이다.

이같은 일반적 성격을 갖고 있는 駐韓美軍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질서를 유지하였고, 韓半島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¹⁷⁾

이러한 평가는 駐韓美軍이 그 동안 수행해 온 役割에 기인하는데, 그 구체적 役割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政治的 役割로서 駐韓美軍은 韓半島의 戰略的 均衡을 위한 빗장(Inchpin) 役割을 수행함으로써 韓半島와 東北亞에서 어느 지배적인 세력의 독점을 견제함과 동시에 세력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1953년 조인된 休戰協定의 체결당사자로서 유엔을 대표하여 停戰協定을 감시하는 役割도 수행하고 있다.

勢力均衡者(Power Balancer)로서 駐韓美軍이 韓半島 및 東北亞의 安定과 平和라는 政治的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軍事力이 필요하며 駐韓美軍 軍事力은 戰爭抑止 機能을 수행해 왔다. 軍事的 役割로서 駐韓美軍의 전쟁 억지력은 미군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Trip Wire) 역할¹⁸⁾과 핵우산이라는 차원에서 볼 수 있다.

韓國은 상당기간 동안 북한과의 전쟁억지 전략에서 韓·美 共同으로 협의할 지휘 체계를 견지할 것이며, 이것은 북한과의 전쟁억지 실천에서 南·北韓 軍事關係에 중요한 戰爭抑止 要因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¹⁹⁾

美 第2步兵師團은 주요 축선상에 위치하여 韓國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美國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되어 인계철색 役割을 수행해 왔으며, 적의 주 공격방향에 배치되어 전쟁억지의 의지를 강력히 나타내고 있다.²⁰⁾

17) 河英善, 前掲書, p.30.

18) 인계철선 전략은 확대 억지 전략의 중요한 부분(Integral part of extended deterrence strategy)으로 미국이 NATO 가입 직후 유럽지역에서 최초로 적용되었음. William To Tow, "Reassessing Deterrence of the Korean Peninsular," The Korean Journal of Defence Analysis, Vol. III, No.1(Summer 1991), pp. 179~218.

19) 이기택, 「韓半島의 政治와 軍事」(서울 : 일신사, 1988), p.277.

20) Claud A. Buss,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 Background for Policy (Stanford, California : Hoover Institution Press, 1982), p.138.

〈表 2-2〉 南・北韓 軍事力 比較

구 분		남 한	북 한
병 력	육 군	54만명	86.8만명
	해 군	6만명 (해병부대 포함)	4.5만명(북한 육군에 편제된 해병부대는 제외)
	공 군	5.5만명(육군 방공 포병 공군으로 전환, 1991)	8.2만명
	총 병 력	65.5만명 (방위병 미포함)	99.5만명
기 동 부 대	군 단	11개 군단	16개 군단
	사 단	49개 사단	49개 사단
	여 단	16개 여단	65개 여단
지 상 배 치	전 차	1,550대	3,600대
	장 갑 차	1,600대	2,500대
	포	4,300문	9,500대
해 상 장 비	전 투 함	170척	436척
	잠 수 함		24척
	지 원 함	50척	250척
	총 계	220척	710척
항 공 장 비	전 술 기	520대	850대
	지 원 기	190대	480대
	헬 기	580대	290대
	총 계	1,290대	1,620대
GNP 대 비 군사비	전력증강 추진연도	1974년	1962년
	군 사 비	GNP의 4%	GNP의 20%
	투 자 비	군사비의 33%	군사비의 48%

* 출처 : 1. 國防部, 「國防白書」(서울 : 國防部, 1991), pp.125~134.

2.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1~1992(London : IISS, 1991), pp.167~170.

美國이 韓國內에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戰術核 武器 역시 중요한 전쟁 억지력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한국은 美國의 核雨傘 보호 아래 있는 것이다. 美國 政府는 韓半島內 核武器 配置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않는 정책(NCND)을 펴 왔으나 韓國에 배치했던 核의 수량은 약 300여개로부터 1,500여개로 알려졌다.²¹⁾ 그러나 1992. 2. 19일 한국과 북한간에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게 됨에 따라 한국내에 배치했던 모든 핵을 철수하였다.

이같은 두 가지 중요한 戰爭抑止 役割 외에 駐韓美軍은 174대의 최신예 항공기를 보유하여 (表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戰術機와 支援機 등 北韓 空軍에 비해 約 2:1 정도의 劣勢에 놓인 韓國 空軍을 전략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또 戰術 核武器를 운반할 수 있는 駐韓 美 空軍과 早期警報 및 監視 支援을 통해 필수 불가결한 軍事的 役割을 수행하고 있다.²²⁾

한편으로 韓國과 日本을 포함하는 東北아시아의 경제적 중요성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데 駐韓美軍은 이 지역에서의 軍事 및 政治的 安定維持에 기여함으로써 동북아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成長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駐韓美軍은 韓國에게도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 駐韓美軍 발표에 따르면 1989年 한해동안 駐韓美軍은 韓國人 雇傭人의 給料과 國內 物品 購入 등 (表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10億 달러 이상의 經濟的 寄與를 했다.²³⁾

駐韓美軍은 이상과 같이 東北亞 지역에서 勢力均衡을 통한 安定과 平和에 중요한 役割을 담당해 왔다. 美國측 입장에서 볼 때는 蘇聯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中國에게는 蘇聯, 美國과의 等距離 外交와 費用主義 路線을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는 안전핀(Safety Valve) 役割을 제공하고, 日本에게는 核武器의 防止와 蘇聯의 影響 내지는 협력하에 사회주의화 할 위험성을 차단해주고 있으며 北韓에게는 韓國軍이 단독으로 북침할 수 없다는 '탄약고의 열쇠를 美國이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놓고 있다.²⁴⁾

21) 이기택, 前揭書, p.427.

22) 國防部, 「國防白書」(서울 : 國防部, 1991), p.54.

23) 「韓國日報」, 1990年 2月 8日字

24) Young-Koo Cha, "US Forces in Korea : It's Role and Future," CSIS/KID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Future of ROK-US Security Relations(Seoul : KIDA, 1988), p.11.

〈表 2-3〉 駐韓美軍의 經濟的 寄與

(단위 : 100만불)

구 분	금 액
韓國인 민간인 급료	283.1
駐韓美軍의 지출비	140.8
PX 국내 판매	16.2
주택 임차 비용	95.5
韓國 판매처 연간계획	168.9
국내 전속/출장비	7.3
기타 공무비	299.5
계	1,011.3

* 출처 : 國防部, 「國防白書 1989」 (서울 : 國防部, 1989), p.165.

한편 韓國의 입장에서 駐韓美軍의 주둔으로 北韓의 南侵을 抑止하고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維持할 수 있으며 尖端情報(早期警報 및 監視)를 支援받음으로써 經濟 復興 및 社會福祉, 開發事業에 전념할 수 있었다.

駐韓美軍 주둔은 國際情勢의 變化, 美國의 國內政治, 南·北韓 軍事力 均衡, 韓國의 國內政治 등에 따라 '영원한' 주둔은 불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美國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撤軍 論議도 그러한 變化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최근 신데탕트와 美國의 經濟力 弱화에 따른 클린턴 행정부의 國防豫算 削減 收容, 對美 黑字國으로서의 韓國의 급격한 成長, 韓國內 民族主義의 高潮 등은 變化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韓國 防衛에 있어서 駐韓美軍의 役割이 主導的인 役割(Leading Role)에서 支援的 役割(Supporting Role)로 變化되어야 할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며 韓·美 軍事協力關係 發展 및 韓國의 自主國防 確立面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變化인 것이다.

이러한 變化는 韓國과 美國間에 協力 및 때로는 이견이 내재되어 있는 韓美 安保 懸案을 해결하면서 가능한 것이다. 그 주요 현안이 바로 현재 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作戰統制權,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駐韓美軍 撤收와 같이 美國의 政策과 軍事戰略 變化의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駐韓美軍 減縮과 美國이 韓國側에 대해 요구하는 防衛費 分擔問題, 현재 추진중인 北韓의 核 開發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韓·美間의 共同努力 등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 본다.

第 3 章 韓·美 聯合 指揮體制와 作戰統制權

韓國의 安保에 있어서 駐韓美軍의 役割이 컸던 것은 사실이나 韓·美 安保關係를 볼 때 항상 쟁점이 되어 온 것이 바로 聯合司令官이 갖고 있는 作戰統制權 問題이다.

1950年 7月부터 유엔군司令官에 의해 행사되어 온 韓國軍에 대한 作戰統制權이 1978年 11月 韓·美聯合司令官部가 創設되면서 양국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로부터 전략 지시를 받아서 韓·美聯合司令官이 作戰統制하도록 조정되었지만²⁵⁾ 韓·美聯合軍司令官職을 美軍이 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작전통제를 미군으로부터 받는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하지만 주권국가로서 타국군 司令官으로부터 작전통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본다.

최근 들어 作戰統制權을 韓國軍에게 완전 移讓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충분히 검토한 후 시기 및 방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韓·美 聯合 指揮體制와 作戰統制權 引受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韓國軍에 대한 作戰統制權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第 1 節 作戰統制權의 變遷過程

1950年 7月 14日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현 전쟁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을 유엔군司令官에게 移讓한다고 천명하였다. 그후 1954年 11月 17日 체결된 韓·美合意의사록에서 유엔군사령부가 韓國防衛를 책임지는 동안 韓國軍에 대한 作戰統制權(Operational Control : OPCON)을 유엔군司令官이 행사하도록 공식화되었다.

25) 國防部, 「國防白書」(서울 : 國防部, 1991년 10월), p.194.

50年 7月 16日 맥아더 장군의 회신이 駐韓 美大使를 통해 韓國측에 전달되었다.

이 대통령의 공한에는 “... 현 적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대한민국의 陸·海·空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移讓한다(Assign to you command authority overall land, sea and air forces of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period of the continuation of the present hostilities.)”²⁶⁾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초(Muccio) 美國大使를 통해 전달된 맥아더 장군의 회신에는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大韓民國의 陸·海·空軍의 作戰指揮權을 委任(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over the land, sea and air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present hostilities)” 받은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상의 移讓은 그 이전 서울이 북괴에게 점령되고 韓國軍이 瓦解의 위기에 처해 있던 1950年 6月 29日 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원에 도착한 맥아더 극동군司領官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작전지휘권을 요구하였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1950年 7月 1日, 이 대통령은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에게 맥아더 사령부의 作戰指揮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²⁷⁾

韓國전쟁기간 중에는 UN軍司令官이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행사하였으며, 1953年 7月 27日 休戰 이후 10月 1日 변영태 外務部長官과 덜레스(John Foster Dulles) 美 國防長官間에 체결된 韓·美相互防衛條約(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에 근거하여 美軍의 韓國 주둔은 계속되었고, 1954年 11月 17日 韓國에 대한 美國의 軍事 및 經濟援助에 관한 大韓民國과 美合衆國간의 韓·美合意意思錄이 서울에서 韓國 外務部長官과 駐韓 美大使間에 서명하여 체결되었다. 이 합의意思緣은 休戰協定 締結 이후 大韓民國의 經濟復興과 駐韓美軍의 撤收에 따른 韓國軍의 軍事力 增強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서 韓·美間에 체결되었다. 기본문에 대한 韓國의 意圖 및 政策과 美國의 意圖 및 政策 그리고 經濟援助와 經濟援助에 관한 부록으로 構成되어 있다. 여기서 유엔군司令部가 韓國의 防衛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 韓國軍은 유엔군司令部の 作戰統制(Operational Control : OPCON)下에 둔다고 공식화하였다.²⁸⁾

이 대통령의 公翰에 作戰指揮權(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으로 명시되었던

26) James P. Finley,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Seoul : Secretary Joint Staff, HQs, USFK/EUSA, 1983), p.59.

27) 정일권, 「戰爭과 休戰」 (서울 : 東亞日報社, 1986), p.48.

28) 國防部, 「國防白書」 (서울 : 國防部, 1991), p.194.

것이 韓·美 合意意思錄 大韓民國 政策事項 第2項에 유엔군사령부가 大韓民國 國軍의 作戰統制權(Operational Control)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둔다고 명시함으로써 作戰統制權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정식 외교문서에 의해 韓國軍의 作戰統制權을 UN軍司令部가 보유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이 대통령의 公翰에서 作戰統制權의 제한요소를 “현 敵對行爲가 계속되는 동안(During the period of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hostilities)”이라는 요소였으나, 合意意思錄에서는 “大韓民國 防衛를 책임지는 동안”이라는 UN軍司令부의 機能에 의거 作戰統制權은 제한을 받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²⁹⁾

그러나 양국의 개별적 이익의 변경에 양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50年 作戰指揮權 移讓時에는 作戰指揮權을 의미하고 있으나 韓·美합의회의록에서는 作戰統制權(Operational Control : OPCON)이라고 하여 순수 軍 作戰에만 한정시켜 권한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1957年 7月 1日 유엔군司令部가 동경에서 서울로 이동함에 따라 유엔군司令官은 駐韓美軍司令官 및 8軍司令官을 겸하게 되었고, 동시에 美國의 國防部 개편으로 美 極東司令部가 解體되면서 美國의 일방적 조치로서 駐韓美軍의 作戰統制權은 美太平洋司令部(USPACOM)로 轉換되었으며, 유엔군司令部는 韓國軍만 작전 통제하도록 조정되었다.³⁰⁾

이같은 지휘체제의 변동에 따라 유엔군司令部는 일반명령 38호를 하달하여 美 8軍司令官을 유엔군司令部 地上構成軍司令官으로, 駐韓美海軍司令官을 유엔군司令部 海軍構成軍司令官으로 그리고 314비행사단장을 유엔군司令部 空軍構成軍司令官으로 임명하여 韓國軍을 作戰統制하도록 조치했다. 이 후 1961年 5·16軍事革命 및 1968年 1月 21日의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 1968年 1月 23日의 프에블로호사건 등이 발생하여 作戰統制權의 적용한계를 놓고 韓·美간에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1968年 4月 13日 朴一준슨 頂上會談의 共同 聲明書에서 대침투작전은 韓國單獨으로 수행할 것을 인정하게 됨으로 해소되었다.

29) 최승주, “駐韓美軍과 作戰統制權”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pp. 61~62.

30) 김달중, “作戰統制權 確立”, 「200年對의 科學的 國防體制 研究報告書」 (서울 : KIDA, 1989), pp.157~158.

第2節 韓·美聯合軍司令部와 作戰統制權

韓國戰爭 이후 유엔군司令部에 의해서 단독으로 행사해오던 韓國軍에 대한 作戰統制權은 1978年 11月 7日 韓·美聯合軍司令部가 創設되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즉 作戰統制權 行事に 있어서 韓·美 兩國이 동참한다는 것이다.

韓·美 양국은 1976年 5月 第 9次 韓·美安保協議會(SCM)에서 韓·美聯合指揮體制定立의 필요성에 합의하였고, 1977年 3月 카터 미 대통령의 駐韓美軍 撤收計劃이 발표되었다. 1977年 7月の 第 10次 韓·美 安保協議會에서 韓·美聯合軍 創設 및 구체적인 권한 위임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78年 7月 28日 第 1次 韓·美 軍事委員會(ROK/US Military Committee)에서 韓·美聯合軍司令부의 任務와 指揮關係를 규정한 전략지시 1호(Strategic Directive No.1)가 하달되었고, 그 해 10月 17日 韓國 外務部長官과 駐韓 美大使간에 韓·美聯合司令部 설치에 관한 각서가 교환되었으며, 이에 1978年 11月 7日 韓·美聯合軍司令部(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 CFC)가 創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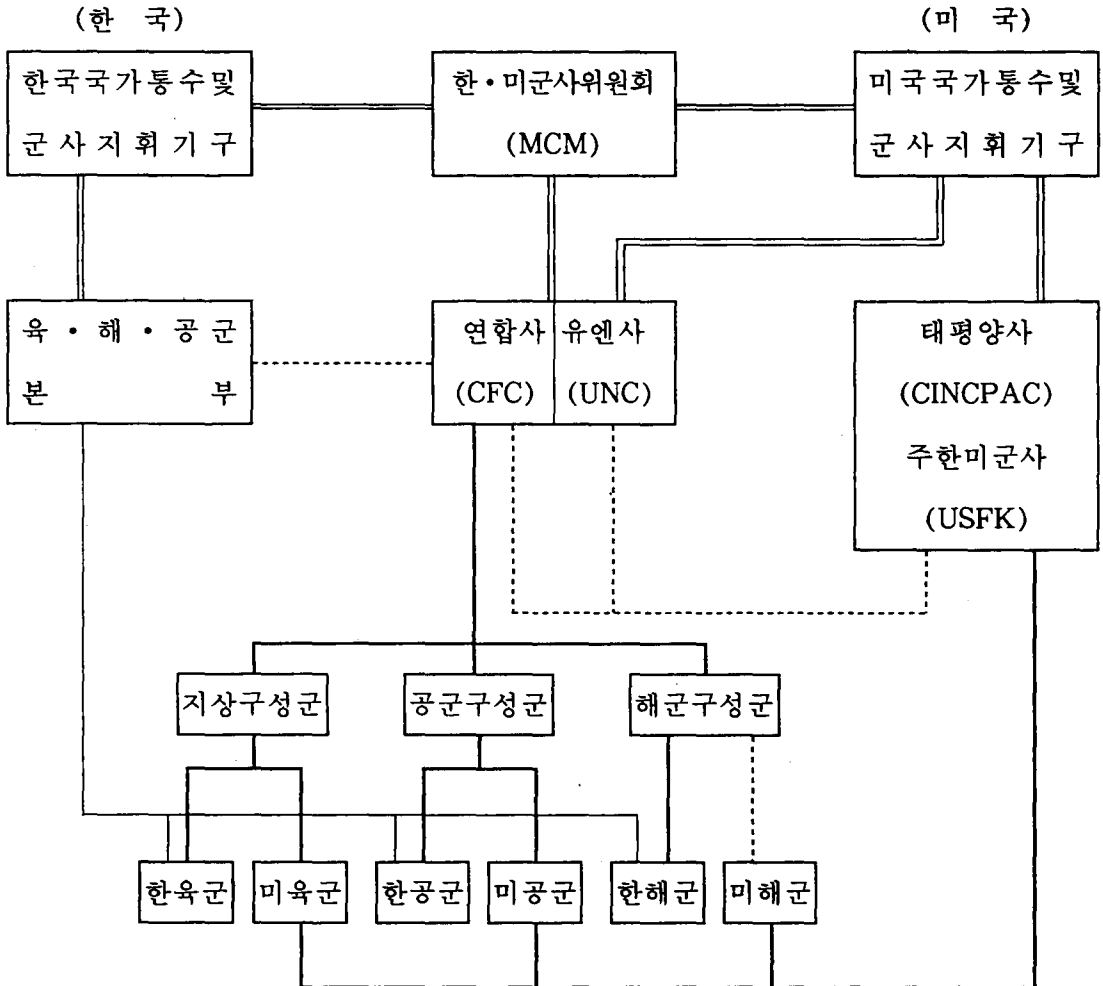
이에 따라 유엔군司令部는 韓半島의 平和 및 停戰協定 維持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게 되었고 韓國防衛를 위해 할당된 부대에 대한 통제는 <表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美聯合司가 韓·美軍事委員會(MCM)로부터 전략지시(Strategic Directive)와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하고 있다.³¹⁾

韓·美聯合司는 양국의 통합된 군사노력으로 韓國에 대한 외부의 적대행위를 억지하고 억지 실패시 韓國에 대한 무력공격을 분쇄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 군사력의 지속적인 관찰 및 평가, 감시 및 조기 경보체제의 향상, 연합작전계획의 발전, 증원부대 전개계획의 발전, 연합·합동 활동의 강화, 전시군수계획의 발전 등 연합작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韓·美聯合司의 作戰統制를 받는 韓·美 양국군 병력은 평시 육·해·공군을 합해 64만여명이며, 전시에는 韓國 豫備軍 350만명과 美國의 增援軍도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2군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연합사의 작전통제하에 들어 있지 않다.

31) 國防部, 「國防白書」, (서울 : 國防部, 1991) pp.194~195.

〈表 3-1〉 韓・美聯合軍司令部 指揮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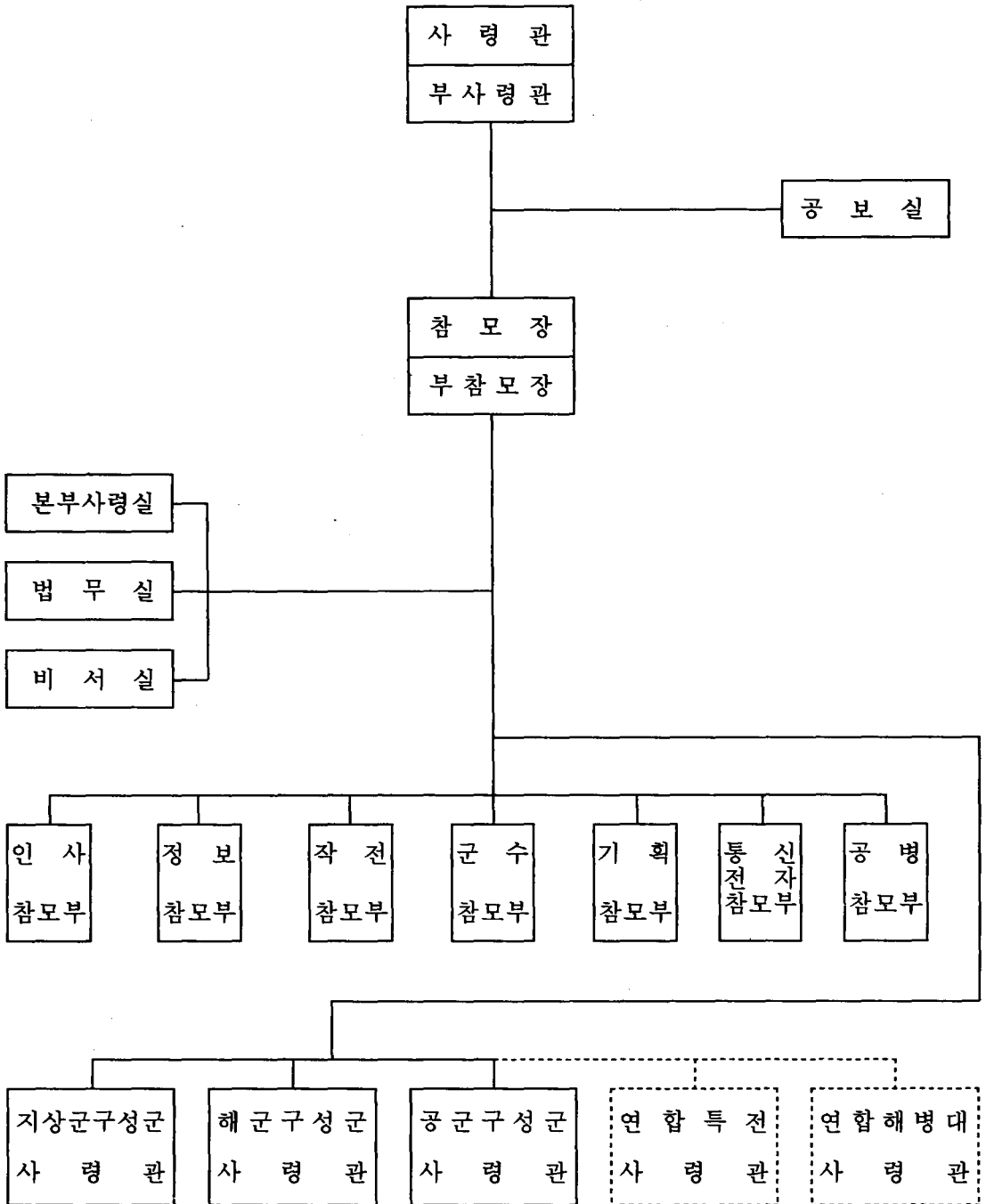
범례 : 전략지침 ≡ 지휘 — 작전통제 — 협조·지원 - - - - -

* 출처 : 國防部, 「韓半島 軍事政勢 資料集 1988. 4~1989. 3」

(서울 : 國防部, 1989), p. 378 : John H. Cushman, 韓國의 指揮體制 : 爭點과 解決策 (서울 : 戰略問題研究所/國防科學研究院 主催 國際學術會議, 1988. 9. 12 ~ 13), p. 7.

〈表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聯合司 예하부대에는 지상구성군사령부(GCC), 해군구성군사령부(NCC), 공군구성군사령부(ACC), 연합특전사령부(CUWTF) 및 연합해병사령부(CMFC)가 있으며 이 중 地上構成軍司令官은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이

〈表 3-2〉 韓・美聯合軍司令部 機構圖



* 출처 : 國防部, 「國防白書」(서울 : 國防部, 1991), p.196.

말고 있고, 空軍構成軍司令官은 오산에 있는 미 제7공군司令官(중장)이, 海軍構成軍司令官은 韓國 海軍作戰司令官이 맡고 있으며³²⁾ 연합해병사령관은 한국 해병대사령관이 맡고 있다.

韓·美聯合軍司令部 編成은 양국의 통합된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司令官(미군 4성장군)과 副司令官(韓國軍 4성장군) 외에 사령부내 참모 및 구성요원이 동률 원칙에 따라 동수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하 각 구성군사령부와 주요 사령부 지휘관 역시 韓·美 양국 장교로 동률로 편성되어 있다.

韓·美聯合軍司令部는 부여된 임무에 부합되는 연합 군사력의 소요 및 기타 기능에 관하여 군사위원회에 건의하며, 작전통제부대의 연합·합동 연습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또한 韓·美聯合軍司令部는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적의 정규 및 비정규전 능력에 관한 첩보를 수집 및 전파하며 적 공격 징후의 지속적인 탐지를 포함하는 兩國內에서의 聯合 정보활동에 협조하고, 작전통제부대 목록의 발전, 장비의 현대화 및 지원임무를 수행한다.³³⁾

현재의 韓·美聯合軍司令部 지휘체제는 駐韓美軍의 감축과 役割調整에 따라 지상 구성군사령부(GCC) 司令官을 1992년 말에 韓國軍 4성장군으로 임명하는 등 단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現 聯合司 지휘체제 내에서 韓國軍 役割의 획기적인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조치와 관련하여 판문점에서 열리고 있는 군사정전위원회담의 수석대표를 91년 3월 25일자로 韓國軍 將星을 임명하였으며, 이는 정전협정체제 관리에 韓國軍이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본다.³⁴⁾

韓·美 聯合 指揮體制가 형성되고 韓國軍에게 일부 권한이 이양되는 일련의 조치가 있음으로 하여 과거보다는 作戰統制에 있어 韓國軍의 地位와 權限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문제의 핵심은 역시 한국군에 대한 作戰統制權을 韓國軍 單獨으로 우리의 의도대로 자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32) 東亞日報社, 「駐韓美軍」(서울: 東亞日報, 1991. 2), p.21.

33) 國防部, 「國防白書」(서울: 國防部, 1991년 10월), p.196.

34) 안병준, 「強大國 關係와 韓半島 安保論」(서울: 法文社, 1989), p.501.

第3節 作戰統制權 引受方案

過去와는 달리 지구상의 많은 國家들이 獨自 戰力を 육성함과 동시에 集團安保體制와 同盟條約 등 共同防衛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國家안보의 위협이 심각하거나 이념적인 대립이 큰 國家들 뿐만 아니라 이른바 非同盟을 표방하는 第3世界國家들 까지도 美·蘇 어느 일방과의 軍事同盟 關係에 있거나 軍事基地 提供을 통하여 自國의 安保를 유지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³⁵⁾ 이는 단독방위에 따르는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 어렵고, 전략 특성 및 조기경보 수단의 확보와 군사장비에 대한 自體 生産技術 및 能力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힘들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作戰統制權을 행사해 왔으나 1978年 韓·美聯合司 創設 이후 韓·美軍事委員會(MCM)로부터 전략지침을 받아서 作戰統制權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韓·美聯合軍사령관이 美軍 대장이므로 韓國軍에 대한 作戰統制權을 연합사령관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처럼 일부의 오해가 있었다.

作戰統制權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韓國軍에 대한 作戰統制를 한국측의 의도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과 韓國戰爭時 美軍에게 이양된 作戰統制權을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물론 韓·美 聯合 指揮體制를 유지함으로써 전쟁 억지와 동북아 평화유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도 없지 않다. 첫째, 자주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이 自國軍에 대한 作戰統制를 우리 의도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國家 位相 및 國民 感情에 손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작전통제부대의 규모면에서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韓國軍 部隊를 作戰統制하는 데 비해 평시에 연합사령관이 작전 통제할 수 있는 부대는 고공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駐韓美軍의 F-15 전투기 2대 뿐이다.³⁶⁾ 셋째, 韓國軍이 軍事力 建設에서 지상군에 비해 해·공군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으며 지휘통제체제가 미비하다는 것이다.³⁷⁾ 넷째, 2원적인 지휘

35) 朴宣燮, “作戰統制權에 대한 올바른 利害,” 「安保環境과 軍事協力」, p.227.

36) 「東亞日報」, 1990年 2月 17日

37) 曹奉鉉, 「作戰統制權을 중심으로 한 韓美軍事關係」 (國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8), p.87.

체제와 작전의 효율성 그리고 긴급사태시에 부대운용에 있어서의 의견 불일치 가능성 등이다. 다섯째, 국가위신 및 지휘문제이다. 駐韓美軍의 存在와 聯合司令官의 作戰統制權 보유는 北韓으로 하여금 韓國을 제외하고 직접 대미협상을 주도할 구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韓國軍이 作戰統制權을 이양할 경우 韓·美간에 교환한 公翰, 合意, 聯合司 創設 당시의 전략지시 등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作戰統制權 이양에 관한 문제는 이미 90年 MCM에서 년-워너 2단계(93~95년)에 평시 作戰統制權을 이양받고, 1995年 이후 戰時 作戰統制權을 이양받는 것으로 韓·美간에 협의가 있었다.

그러나 作戰統制權의 이양을 중심으로 한 현행의 韓·美 聯合 防衛體制의 개선은 다음과 같은 여건의 변화, 즉, 北韓의 對南政策 轉換과 北韓 군사위협의 원천적 소멸, 駐韓美軍 전투부대의 완전철수 및 유사시 미 증원군의 투입기대 곤란,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³⁸⁾

作戰統制權 인수문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어느 시기에,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인수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韓·美 兩國의 국가통수 및 군사 지휘기구로부터 전략지시를 받고 있기는 하나 주권국가에서 자국의 군대에 관한 作戰統制權을 美軍司令官이 갖고 있다는 것은 韓國國民의 自主性 回復이라는 大命題와 韓國의 戰力이 北韓의 戰爭挑發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하는 韓·美 聯合 防衛體制를 유지하여 국익을 취한다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³⁹⁾

그 첫째는 西獨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시에는 韓國 政府가 육군에 대하여 作戰統制權을 행사하고 戰時에는 美軍司令官이 그것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駐韓美軍이 韓國軍司令官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는 현재의

38) 오관치-차영구-황동준 共著 「韓美 軍事協力 關係의 發展과 展望」

(서울 : 세경사, 1990), p.207.

39) Korea at the Crossroads, Implication for American Policy(New York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Asia Society, 1987), p.40과 Edward A. Olsen, US policy and the two Koreas(Boulder : Westview), P.78. 참조, 안병준, 「強大國 關係와 韓半島 安保論」, pp.500~501에서 再引用

구조대로 CFC司令官이 계속해서 지휘권을 행사하되 副司令官인 韓國軍 將星의 권한을 증대시키고 기타 지휘계통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첫째 대안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兩國軍이 지상군의 95%를 차지하므로 지휘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美軍의 주둔과 그에 의한 억지력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美·日型和 같이 韓·美 兩國이 自國軍에 대한 作戰統制權을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⁴⁰⁾

또한 어떠한 방법을 택하던 간에 韓·美간에 긴밀한 협력하에 作戰統制權 移讓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측으로서는 作戰統制權 引受를 위하여 合참의 機能 強化로 戰爭企劃 및 作戰指揮能力 向上, 유엔군사령부의 존속 여부에 관한 법률적 고찰, 危機管理 및 戰時 轉換體制 確立, 指揮·統制·通信 및 情報體制(C³I) 確立에 관한 대책을 樹立 施行해야 할 것이다.

90年度 韓·美安保協議會(SCM)에서는 平時 作戰統制權을 年一위너 2단계(93~95)중에 韓國측이 인수하는 방안에 韓·美간이 합의하였다.

第 4 章 駐韓美軍 撤收와 防衛費 分擔

駐韓美軍은 韓·美 安保關係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로서 韓半島에서의 전쟁억지와 동북아시아에서 美國의 對蘇 封鎖戰略의 일환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駐韓美軍의 戰力은 國際政治的 環境과 美國의 政策 變化에 따라서 증감되었으며 美國의 軍事戰略과 國家利益에 따라서 ‘주둔’과 ‘철수’를 계속해 왔다.

韓國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군사력이 대북 억지 수준을 유지할 때까지 駐韓美軍의 주둔을 희망해왔었으나 駐韓美軍의 撤收는 美國 自身の 정책결정과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韓國과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駐韓美軍의 부분적인 減縮問題는 소련의 몰락으로 인한 냉전의 종식과 국제정세 변화 그리고 美國의 財政赤字 등과 연결되어 韓國측에 防衛費 分擔과 駐韓美軍의 役割變化 등이 대두되고 있다.

40) 오관치-차영구-황동준 共著, 「美軍 軍事協力 關係의 發展과 展望」, pp.199~203.

第 1 節 駐韓美軍 撤收史

1945年 해방과 함께 이 땅에 주둔하기 시작한 美軍은 그동안 크게 나누어 네 차례의 撤軍을 단행했다.

美 軍政 3年만인 48年 8月 15日 정부수립 직후부터 이듬해까지 駐韓美軍 병력 3만여명 가운데 500여명의 군사고문단만을 남겨 놓은 사실상의 전면 철수가 1차 철군이였다. 그리고 6·25전쟁이 끝난 뒤인 54년 참전 미군 34만명 가운데 2개 사단 7만여명만 남긴 대규모의 철수가 2차 철수, 70年 닉슨 대통령의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에 따른 7사단 철수가 3차 철군, 77년 카터 대통령의 철군정책에 따른 부분철수가 4차 철군이다.⁴¹⁾

이에 따른 駐韓美軍 兵力規模는 <表 4-1>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들 네 차례의 駐韓美軍 撤收는 모두 韓國政府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단행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점은 앞으로 언젠가는 있게 될 駐韓美軍의 撤收 또는 減軍問題를 생각할 때 깊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⁴²⁾

이같은 상황에서 과거 네 차례 있었던 駐韓美軍의 撤收背景과 過程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수립후 4개월만인 1948年 12月 29日 워싱턴 및 AP 통신은 “駐韓美軍 兵力의 상당수가 이미 撤收를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타전했다. 美軍이 조만간 떠날 것이라는 얘기는 1947年 11月 “정부수립후 90일 이내에 美·蘇 兩軍을 撤收시키자”는 유엔총회의 결의 이후 기정사실화됐던 것이었지만 AP 통신이 구체적인 움직임을 확인해 준 셈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撤軍은 1948年 5月 현재 3만여명이던 駐韓美軍이 그해 12월 초 이미 16,000명으로, 이듬해 1월에는 다시 7,500명으로 감소됐다. 이어 1949年 6월에는 군사고문단 요원 500명만 남기고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 美國은 韓國의 의사와는

41) Lee, Suk Bok, The Impact of US Forces in Korea(Washington D.C. : US National Defence University Press, Fort Lesley J. McNAIR, 1987), pp.22~64.

42) 東亞日報社, 「駐韓美軍」(서울 : 東亞日報社, 1991), p.185.

〈表 4-1〉 駐韓美軍 兵力 推移

연 도	병 력 규 모	연 도	병 력 규 모
1945	72,000	1968	67,000
1947	40,000	1969	61,000
1948	16,000	1970	54,000
1949	500	1971	43,000
1950	214,000	1972	41,000
1951	253,000	1973	42,000
1952	266,000	1974	38,000
1953	325,000	1975	42,000
1954	223,000	1976	39,000
1955	85,500	1977	42,000
1956	75,000	1978	42,000
1957	70,000	1979	39,000
1958	52,000	1980	39,000
1959	50,000	1981	38,000
1960	56,000	1982	39,000
1961	58,000	1983	39,000
1962	57,000	1984	41,000
1963	57,000	1985	42,000
1964	63,000	1986	43,000
1965	62,000	1987	45,000
1966	52,000	1988	46,000
1967	56,000	1989	44,000

* 출처 : C. Murphy and G. Evans, U.S. Military Personnel Strength by Country of Location since World War II, 1948~1973 ;
 U.S. Embassy, Seoul, Report on Korea, 1976; Annual Report to the Congress Fiscal Year 1985, 1987, 1990, 1991 ;
 W.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U.S. Army, 1961) ; W.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U.S. Army, 1966).
 오관치-차영구-황동중 共著, 「韓·美 軍事協力關係의 發展과 展望」(서울 : 세경사, 1990), p.56에서 再引用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駐韓美軍 撤收 作業을 진행시켰던 것이다.

1950年 1月에는 “美國의 극동방위선은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의 혼슈를 거쳐 오키나와로 연장되는 선에서 다시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결정한다”는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당시 駐韓美軍의 撤收를 촉진시킨 요인은 2차대전후 급속한 평화체제로의 전환, 의회의 예산 절감 압력과 국방예산 대폭 삭감으로 인한 美軍兵力 減縮, 海外駐屯 美軍 撤收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 속에 있었다.

駐韓美軍의 제2차 철군은 韓國戰爭이 끝난후 1954年 3月 미 45사단 병력이 인천항을 떠난 것을 시작으로 그해 말까지 진행되어, 한국전쟁 중 약 30만명이던 駐韓美軍은 1955년에는 약 8만명으로 줄었고, 그 이후 약 6~7만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2차 철군은 한국전쟁 직후여서 미국내에서 조차 여론이 있었으나 철군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다만 국군 증강계획이 세워져서 미국의 협조 아래 철수와 병행해서 추진됐다는 점이 1차 철군과 다른 점이였다.

1969年 7月 25日 아시아 5개국 순방에 앞서 괌도에 도착한 닉슨 대통령은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갖고 ‘괌 독트린’ 또는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으로 불리는 폭탄선언을 한다.

“아시아 국가들은 공산국가의 침략에 대비해 대미 의존도를 버리고 스스로 집단 안보체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駐韓美軍 1개 사단을 철수하겠다는 美國의 撤軍計劃에 대해 韓國政府는 강력한 반대를 하였다. 그러나 1970年 7月 美國은 포터 駐韓 美國大使를 통해 駐韓美軍 1개 사단 감축계획을 공식 통고한 뒤 이듬해 3월까지 7사단 병력 2만명의 철수를 완료했다. 韓國政府는 이를 막아보기 위해 다각적인 교섭을 벌였으나 무위로 끝났다. 韓國政府는 1966年 韓國軍 월남 파병 때 ‘한국군 1개 사단을 증파하는 대신 駐韓美軍 2사단과 7사단은 계속 주둔시킨다는 ‘브라운 각서’에도 위반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으나 미국은 계획대로 철군을 실시했다.

카터 대통령의 4차 철군정책은 현실을 묵시한 무책임한 발상이란 점에서 미 의회 및 군부로부터 많은 비판과 반발이 있었다. 카터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자신의 공약대로 1977年 1月 20日 취임 즉시 철군계획을 세우도록 관계관에 지시하고 그해

3월 워싱턴을 방문한 박동진 외무부장관에게 4~5년에 걸친 단계적 철수 방침을 통보했다.

韓國政府는 ‘先 補完 後 撤收’를 요구했으나 ‘美國은 撤收와 보완 병행’ 방침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해 7월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를 마치면서 韓·美 兩國은 공동성명을 통해 “1978년까지 미 지상군 전투병력 6천 명을 철수하고 나머지 전투병력의 철수는 신중히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미 2사단 본부와 2개 여단은 철수 최종단계까지 한국에 잔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해 제1진 1,000명의 駐韓美軍이 撤收했다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지는 ‘전쟁위험 안은 駐韓美軍 撤收’라는 제목으로 주한 미 8군 참모장 싱글러브 소장의 철군에 반대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⁴³⁾

이 발언으로 ‘싱글러브 파동’이 일어나자 카터는 그를 소환하고 미 8군 참모장직에서 해임시켰다. 카터는 결국 의회와 군부의 반대에 부딪혀 1978년 4월 성명을 통해 駐韓美軍 撤收計劃을 수정하게 된다.

이 같은 撤軍의 歷史를 돌이켜 볼 때 美國은 國家利益과 政策 및 軍事戰略에 의해서 언제라도 駐韓美軍은 撤收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향후의 駐韓美軍이 撤收할 경우에는 일방적 통보가 아닌 韓國政府의 충분한 사전 협의 후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⁴⁴⁾

第 2 節 최근 駐韓美軍의 減縮 및 役割 變化

여기서 最近에 논의되고 있는 駐韓美軍의 減縮과 이에 따른 역할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韓美安保協力에 제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이 곧 駐韓美軍의 撤收 및 減縮問題이다. 이미 美國의 民間研究所에서는 韓國의 經濟力과 ‘신데탕트’를 계기로 단계적인 撤軍을 공개적으로 제의하였으며 동시에 核武器의 撤收도 논의되었다.⁴⁵⁾

43) 「Washington Post」 1977年 5月 19日 字 참조

44) 東亞日報社, 「駐韓美軍」(서울: 東亞日報社, 1991), pp.185~189.

45) Amos A. Tordar and William J. Taylor, “Korea It’s time for a U.S. Pullout to Begin”,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December 3~4, 1988 참조

1980年代에 들어 미 의회는 무역 및 재정적자의 심화로 인한 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국방비의 대폭적 삭감, 미소간 군축협상의 진전에 따른 세계적 긴장 완화 분위기의 확산 등으로 유럽주둔 병력 감축과 함께 亞-太地域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을 재평가할 것과 특히 韓國의 經濟, 軍事力의 伸張과 國民意識의 성장으로 駐韓美軍의 減縮 및 役割 變更을 고려하도록 美 國防部에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지난 89年 8月 1日 年-워니 수정안을 채택하여, 행정부로 하여금 아태지역 주둔 미군에 대한 전략적 재평가와 아울러 美國의 負擔을 동맹국들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이 지역 동맹국들과 협의한 결과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미 행정부는 1차 보고서를 1990년 4월에, 2차 보고서를 1991년 5월에 미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는 韓半島에서 뿐만 아니라 걸프전에서 보여 준 韓國政府의 대미지원을 고려하여 2000년을 목표로 韓國防衛에 대한 主導的 役割을 韓國軍에게 전환시키기 위해 駐韓美軍의 減縮 및 役割調整을 韓國政府와 긴밀한 협의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韓國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駐韓美軍을 위한 費用과 役割分擔金 增大를 위해 韓國政府가 계속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⁴⁶⁾

駐韓美軍의 감축은 90년 4월 30일 워싱턴의 美 國防부와 서울의 國防部에서 동시에 발표된 '주한 미 공군 3개 기지 폐쇄 및 비전투요원 2,000명 철수'를 계기로 駐韓美軍 減縮이 가시화되었다. 이와 함께 체니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駐韓美軍 減軍 및 防衛費 分擔金 增額, 作戰統制權 移讓 등 駐韓美軍의 위상변화에 관한 논의가 양국간에 본격화되었다.⁴⁷⁾

駐韓美軍이 현재 북한에 대한 전력지수상 5%의 전력(韓國軍 독자적으로는 66%)을 보유하면서도 韓國에 대한 作戰統制權을 행사하는 등 韓國防衛에서 주도적 役割을 맡고 있지만 감군정책이 추진되면 그 위상이 바뀌어 韓國軍이 주도적 役割(Leading Role)을 담당하고 駐韓美軍은 支援的 役割(Supporting Role)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본다.

駐韓美軍의 철군문제는 철군정책의 배경이 어떠한지 북한의 남침위협에 직면한

46) 國防部, 「國防白書」(서울: 國防部, 1981), p.198.

47) 東亞日報社, 「駐韓美軍」(서울: 東亞日報社), p.195.

채 '휴전' 상태에 있는 韓國의 장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며, 韓半島 주변 4대 강국이 동북아지역에서의 세력균형 유지에도 큰 변화를 줄 요소여서 韓·美 양국은 물론 북한과 주변국가에 계속 焦眉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감군을 가장 강력히 주장했던 국방소위원회의 범퍼즈(Dale L. Bumpers, 민주당, 아칸소주) 미 상원의원은 현재의 駐韓美軍 병력을 지난 81年(3만8,000명)보다 5,000명이나 더 많은 것이므로 90年 9월부터 3년간에 걸쳐 1만명을 감축하고 90년 4월 이전에 의회에 감축방안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 주장은 韓國이 北韓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과 韓國의 美國에 대한 반미감정에 자극받은 결과론이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U.S. Seante Committee on Armed Service) 산하 재래식 전력 및 동맹방위소위원회(Subcommittee on Conventional Forces & Alliance Defence) 위원장인 칼 레빈(Carl M. Levin, 민주당, 미시간주)은 89年 2月 동서 긴장완화와 韓國의 北方政策, 美國의 經濟力 惡化 등을 이유로 주한 미 지상군 1개 여단만 주둔, 5년내 駐韓美軍 1만명으로 감축,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북한의 신뢰 구축시에는 감축 가속화, 연합작전 지휘체제 재조정 등을 제안했다.⁴⁸⁾

샘 년(Sam Nunn, 조지아주, 민주당) 상원 군사위원장과 존 워너(John W. Warner, 버지니아주, 공화)의원이 내놓은 89年 7月 상원 범퍼즈 법안에 수정안으로 가결된 '넌-워너 수정안'을 駐韓美軍 장래 5개년 계획 보고, 駐韓美軍 役割變化, 駐韓美軍 直接費 駐屯 負擔金 增大, 作戰統制權 變化, 東北亞 信賴構築 方案 등을 90年 4月 1日에 議會에 보고하고 90年 안에 2차 보고토록 요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駐韓美軍의 장래에 관한 협의는 韓國측이 1985年 제17차 韓·美安保協議會에서 지휘체제 개선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넌-워너 수정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된 1989年 8월 이후 양국 정부간에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후 1990年 2月 15日 서울에서 개최된 韓·美 國防長官會談에서는 <表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駐韓美軍 減縮 및 役割 變更事項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고, 1990年 11月 14日 워싱턴에서 개최된 12차 韓·美軍事委員會議(MCM)에서는 1단계기간(90~92)중 시행될 駐韓美軍의 감축은

48) 황동준-한남성-이상욱, 「美國의 對韓安保支援 平價와 韓·美防衛協力 展望」(서울 : 민영사, 1990), pp.65~66.

비전문요원을 위주로 지상군 5,000명과 주한 미 공군기지 재조정으로 인한 공군병력 2,000명으로 결정되어 현재 감군을 시행 중이다.

1단계 조치 사항으로서 1991년 3월 25일부로 韓國軍 將星을 유엔사 軍事停戰委員會(UNC MAC) 수석대표로 임명하였고, 1991년 10월 1일부로 미 2사단이 담당하고 있는 판문점 지역내 DMZ 경계책임과 GP 2개소를 韓國軍이 인수하였으며, 92년

〈表 4-2〉 3段階 駐韓美軍 再調整 計劃

조정단계	기 간	전략조정 및 감축내용
I 단계	90~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간접 비용 절감, 韓國軍이 맡을 수 있는 일부 임무의 移讓을 통해 기존 군사력을 효율화 ○ 제1보병사단의 지상전력 현대화로 일부 효율화가 뒤따르나 2사단 전투능력은 그대로 견지 ○ 92년까지 공군 2천명과 지상군 약 5천명 등 7천명을 감축 ○ 북한의 위협 재평가 및 I단계 실적을 점검, II 단계 새 목표를 설정
II 단계	93~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사단 병력 구조의 재조정 및 감축 ○ 감축규모는 남·북한 관계 및 韓國 군사력 증강 정도에 좌우되며 美國의 억지능력과 의도를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점차 증대
III 단계	95~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軍이 주도적 役割을 맡고 美軍은 지원 役割로 담당 ○ 억지력 유지에 필수적인 미군 주둔 규모를 더욱 줄이고 여타병력은 철수 고려

* 출처 : 「韓國日報」 1990年 4月 20日字

12월 韓·美聯合司令部가 겸임하고 있는 聯合司令部 地上構成軍司令部에 韓國軍 將星을 보임하고 韓·美野戰軍司令部(CFA)도 해체하였다.⁴⁹⁾

2, 3단계 조치사항은 韓半島 및 주변의 安保環境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한 후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第3節 防衛費 分擔

駐韓美軍 撤收問題는 과거부터 韓·美간에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었지만, 1980年代 이후 防衛費 分擔問題는 韓·美 安保協力 關係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매년 韓·美 年例 安保會議(SCM) 및 韓·美軍事委員會(MCM)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美國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램프·클러프(Ralph N. Clough)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一般的 利益(General Interest), 本質的 利益(Intrinsic Interest), 派生的 利益(Derived Interest), 創造的 이익(Create Interest)으로 나누고⁵⁰⁾ 미국과의 본질적 이익이 있는 지역으로 아시아에서는 日本과 오스트레일리아만을 들고 있다.⁵¹⁾

즉, 日本은 1억의 인구와 경제력, 무역대상자로서 그리고 잠재적인 군사력으로서 중요시하고 核武裝과 再軍備로서 敵對的 同盟國이 될 경우에 동북아시아를 불안케 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어떤 특정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3국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한 이익에서 파생된 국가이익으로서 韓國을 먼저 들고 있다.

“韓國과 대만에 있어서는 美國에 극히 중요한 어떤 본질적 이익도 없다는 것은 논증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한국에서 미국의 안전이해란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태가 日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⁵²⁾ 이같은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태평양의 전략목표인 日本을 방위하고 美國 利益의 보호를 위한 外線(韓國, 泰國을 연결하는 線) 방어의 最前進基地

49) 國防部, 「國防白書」(서울 : 國防部, 1991), p.199.

50) Ralph N. Clough, East Asia and US Security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5), pp.44~47.

51) Ralph N. Clough, 上揭書, p.33.

52) Ralph N. Clough, 上揭書, pp.37~43.

로서 태평양으로 진출을 기도하는 蘇聯의 南進을 차단하고, 中國과 日本을 활용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전략거점(Strategic Strong Point)이 되는 것이다.

또한 美國은 이러한 外線·內線 방어를 확고히 함으로써 세계 교역량의 70%를 점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력을 보호할 수 있고 서태평양, 인도양, 페르시아만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Sealine of Communications : SLOCS)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⁵³⁾

이러한 對韓半島 利益을 추구하기 위해 美國은 駐韓美軍을 계속 주둔시키면서 韓國軍의 전력증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基調는, 첫째, 세력균형의 틀을 유지시키면서 미 군사력의 전개(Presence)를 유지시키고, 둘째, 대소 견제를 위해 美·日·中 軍事協力 體制를 構築 견지할 것이며, 셋째, 소련의 改革(Perestroika), 開放(Glasnost) 정책과 신사고(Novoe Myshlenye)에 의한 융통성 있는 동북아 주변국가 접근에 대응하여 蘇聯에 대해 군사적 대립으로 대응하면서 政治的·經濟的 観点에서 이 지역의 이익 경쟁에 참여하려는 것이었다.⁵⁴⁾

한편 美國은 韓國과 日本 등 安保支援國들에게 防衛費 分擔 등 군사적 역할 증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美·蘇간의 범세계적 경쟁으로부터 우방국들이 부분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줄 것을 강요하는 離脫政策(Disengagement Policy)을 점진적으로 추구해왔다. 이것은 미국이 대소 전략적 차원에서 대륙간탄도탄(ICBM),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및 전략핵 3원칙(Triad)과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통한 攻勢的 抑止概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안보이익을 지켜나간다는 기본정책⁵⁵⁾과는 상반되게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논의와 방위비 분담등을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힘의 공백만을 피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이탈을 전

53) William J. Taylor, "Challenges to US-ROK Security Relations", CSIS/KID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Future of ROK-US Security Relations(Seoul : KIDA, 1988), p.7.

54) 「東亞日報」1988年 3月 6日字 참조

Richard Armitage 美 國防部 東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는 日本과 韓國의 防衛費 分擔을 강조하고 이 지역의 교역량 확대에 따른 美國의 亞太政策의 경제안보로서의 전황을 강조했다.

55) Frank C. Carlucci, Annual Report to the Congress : Fiscal Year 1990(Washington, D. C. : U.S. Government Office, 1989), pp. 13~25.

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변화지 않는 4가지 외교정책 목표인 미국의 보존(Physical Survival), 미국 생활방식의 영구화(Perpetuation of the American way of Life), 경제역량의 증진(Promotion of the economic well being the American Society), 공산주의의 봉쇄(Containment of Communism) 등⁵⁶⁾, 지금까지 韓半島에서 누려온 '경제역량의 증진'과 '蘇聯의 封鎖'라는 양대 이익에서 소련의 봉쇄라는 이익을 한국과 日本으로 하여금 일부 책임지게 하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美國은 무제한적인 군비 경쟁과 전세계적 규모에서 진행되는 군사행동의 강화를 통해 막대한 軍事費를 사용해 왔다. 1980년에 1천4백15억달러이던 군사비 지출이 1986년에는 무려 2천 733.9억불로 늘어났으며 1988년에는 3천억달러선을 돌파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 미국내에서는 이른바 '과도한 제국주의적 팽창(Imperial Overstretch)'에 대한 일련의 논쟁에서 '미국의 상대적 쇠퇴'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美國 경제력의 상대적 하락은 대외정책 변화의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美國은 1950年代 초반 세계인구의 6%로 세계 총생산의 약 40%를 차지 하였으나, 1980년에는 22%의 지분에 그치고 있으며, 전쟁 직후 미국은 제조업분야에서 전세계 수출의 30%를 차지하였으나 1986년에는 13%에 그쳤다.⁵⁷⁾ 그 결과 무역적자도 1987년에 1천5억달러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가 달러화의 하락으로 인해 1989년에는 약 1천80억달러를 기록했다. 美國 經濟의 침체는 특히 財政赤字의 심화로 나타났는데 美國의 財政赤字는 1980年代 중반, 한 때 2천2백억달러를 넘었고 재정균형법 시행 이후 다소 감소했으나 1989년 현재 여전히 1천4백억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美國의 국내 경제적 딜레마에서 비롯된 대외정책 변화는 특히 국방비 문제에 직접적으로 파급되고 있는데 最近 美國防省은 향후 3년간 1천8백억달러의 國防豫算을

56) Geil Lundestad, "Uniqueness and Pendulum Swing in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Vol. 62, No.3, Summer, 1986, p.407.

57) Robert 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p.14.

삭감한다는 목표하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같은 국방비 감축에 따라 무기 체계, 군사력 수준 및 전개에 있어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⁵⁸⁾

美軍當局은 豫算의 效率化를 위해 고도의 정밀장비의 개발과 확보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는 동시에 미국내 기지를 축소하고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군사개입을 억제하고 방위공약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해외 주둔 미군의 점진적인 축소를 진행시킬 계획인 것이다.⁵⁹⁾ 그 결과 美國과 蘇聯이 안고 있는 對內的 政治·經濟的 變化는 군비경쟁의 시대에서 점차 군비감축의 시대를 도래케 함으로써 국제질서를 脫이데올로기와 데탕트 국면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出血支出의 結果 87年 財政赤字는 1천4백10억달러에 이르렀다. 이렇듯 軍事費 支出에 반비례하여 하락하는 經濟 때문에 美國은 마침내 88年, 89年 회계연도의 國防費 豫算을 전년에 비해 530억불 감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전세계에 파견되어 있는 美軍 部隊에 즉각 영향을 끼쳐 태평양사령부의 경우 韓國에 있는 미 8군이 17%, 일본에 있는 제5공군이 11%씩 작전비와 유지비를 감축해야 했다. 同盟國에 대한 防衛費 分擔의 要求는 이같은 美國의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전쟁물자를 사전에 비축하고, 군사기지를 확대하고 공동작전을 강화하여 해당지역내에 전시 입법을 확립한다는 것 등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防衛費 分擔의 촉구는 총체적인 현지 동원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 그 목표인 것이다.

1988年 4月 29日 美 國防部長官 프랭크 칼루치(Frank C. Carlucci)는 ‘동맹국의 공동방위 기여에 대한 보고서’에서 “우리는 동맹국들이 공동방위에 계속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중요한 결론은 앞으로 10년동안 西方 安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防衛費 分擔의 추진이 일

58) 김달중, “國際政治環境과 韓國의 北方政策”, 「東歐의 改革과 韓國과의 經濟協力」(정구현, 김달중 외 著 : 법문사, 1992), pp.60~61에서 再引用

59)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un : Looking Forward to 21st Century, Department of Defence Report to the Constres, Apr 1990, 김달중, “國際政治環境과 韓國의 北方政策”, 「東歐의 改革과 韓國과의 經濟協力」(정구현, 김달중 외 著 : 법문사, 1992), pp.60~61에서 再引用

과성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⁶⁰⁾

카터 前 美國大統領 재임시절 大統領 安保擔當 補佐官을 지냈던 즈비그뉴 브레진 스키도 美國의 상대적 국력감퇴를 전후 대서독, 일본 부흥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이들이 美國을 대체할 수는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美國은 이들과 협력하여 '팩스 아메리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⁶¹⁾

〈表 4-3〉 駐韓美軍 支援現況(1988年)

(단위 : 백만달러)

비 용 요 소	내 용	간 접 비	직 접 비
부 동 산 지 원	토지, 시설 제공	1,596	306
인 력 지 원	카투사, 노무단 및 경계지원 인력	203	4.1
운영유지비 지원	미 군사지원단 경비 韓·美 연합사 예산		4.2
CDIP 지 원	연합방위 증강사업		4.0
군 수 지 원	탄약저장관리, 유류지원, 용역비 등	28.6	48.4
한국군 시설제공	훈련장, 사격장, 항공관제 지원	33	
감 면 혜 택	관세, 통행세, 체신 및 공공요금 할인 등	101	
소 계		2,219	403
계		2,622	

* 출처 : 國防部, 「國防白書」(서울 : 國防部, 1990)

60) 강성철, 「駐韓美軍」(서울 : 일송정, 1988年 11月), p.85.

61) 「韓國日報」1988年 5月 4日字 참조

美國은 실제로 1988년 5월 태프트(Taft) 국방부차관을 대표로 하는 防衛費 分擔 特別班을 편성하여 동맹국을 순방하게 한 적이 있다. 이같은 추세는 美國이 단순히 예산부족에 대처한다는 단기적인 견지에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의 차원에서 防衛費 分擔問題를 검토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防衛費 분담이 韓·美 安保協力の 주요 현안으로 제기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며, 우리는 韓·美 同盟關係 形成에 의해 <表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駐韓美軍 주둔을 위한 지원을 계속 제공해 왔다. 1953년 체결된 韓·美相互防衛條約과 1966년 체결된 주둔군 지휘협정(SOFA)에 의거하여 駐韓美軍에게 土地와 施設을 공여하고 있으며, 1974년부터는 聯合戰鬪 準備態勢 強化와 韓半島 전쟁 억지력 제고를 위하여 韓國이 토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美國이 무기체계와 장비 및 기술을 제공하는 연합방위증강산업(CDIP)을 시작했다.

또한 1980년대 초반부터 韓·美 共同使用施設과 裝備運營費 중 자국군 사용분을 자국이 분담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韓·美聯合軍司令部와 韓·美野戰軍司令部 運營費를 分擔하고 있으며, 1980년대 말부터는 駐韓美軍 주둔 경비성격의 防衛費 分擔問題가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⁶²⁾

이같은 토지제공을 비롯한 카투사(KATUSA), 근로자 등 인력지원, 韓·美聯合司에 대한 運營費 支援, 韓·美 聯合防衛增強事業(CDIP)지원, 군수지원, 훈련장, 사격장 등 시설제공,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계획 등을 모두 현금으로 환산하면 87년 한해동안 19억610만달러 상당을 駐韓美軍에 지원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산이며, 88년도에도 지원내용에 큰 변화는 없으나 토지임대료 인상, 환율변동 등을 감안해 22억1,950만달러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⁶³⁾

防衛費 分擔이란 본래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공동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責任, 役割, 危險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각 국의 능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분담하는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美國은 최근 國際安保 環境 變化와 財政赤字 解消次元의 國防豫算 縮小로 해외주둔 정책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같은 과정에서 주둔국의 防衛費 分擔 增額

62) 國防部, 「國防白書 1991」(서울 : 國防部, 1991), p.189.

63) 東亞日報社, 「駐韓美軍」(서울 : 東亞日報社, 1991), pp.131~132.

을 강조해 오고 있다.

防衛費 分擔은 1978年 韓·美聯合司 創設 이래 어김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대한 군사판매차관(FMS)이 끝난 1986년 이후로는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MCM)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 왔다.

防衛費 分擔要求는 ‘주둔군 지원(HNS) 협정’이라든가 ‘전시 주둔군 지원(WHNS) 협정’과 같은 것을 동맹국에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주둔군 지원’이란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동맹국의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미 육군 야전교범 100-5작전 요무령(FM 100-5 Operations)에 그 효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韓國과 유럽 各國 등 평시에 미군이 배치되어 있는 전투지역에서는 사전에 체결된 HNS협정에 의해 전쟁 초기에 증강되는 미군의 후방지원 조직과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 HNS협정은 항만, 공항, 공수기지의 운영, 주요 도로, 철로, 송유관의 관리, 통신조직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또 지방수송기지, 노무자, 지역경찰의 이용에 관해서도 협정을 맺을 수 있다.”

‘전시 주둔군 지원’이란 주둔국 지원을 전시에까지 연장,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야전교범에 그 내용이 열거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증원부대의 파견지역, 전투지역으로의 이동노선, 전·후방의 주둔지역, 작전지역, 작전 중의 후방지역에 대한 병참, 통신, 보급, 수송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美國과 전시 주둔국 지원협정을 맺은 나라는 벨기에(81년 10월), 서독(82년 4월), 네덜란드(82년 8월) 등이며 덴마크는 이 협정체결을 거부했지만 제한적 성격을 갖는 ‘전쟁물자 비축협정’을 체결(82년 9월)했다.

우리나라는 87年 19次 MCM에서 전시 주둔국 지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특히 최근 걸프전은 美國의 防衛費 分擔要求를 세계적으로 보편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美國은 韓國에 대해서도 경제력 신장과 국제적 지위 향상에 상응하여 防衛費 分擔金을 요구해 오고 있는 추세이다. 韓國防衛를 위한 駐韓美軍의 役割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지원적인 위치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우리의 책임과 役割增大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防衛費 分擔의 增大와 밀접히 관련된다.

韓國은 22次 韓·美安保協議會에서 1991년에 1.5억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韓國의 分擔能力과 駐韓美軍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특수한 安保環境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주요 지원분야는 전쟁 예비물자 저장관리, 장비 정비, 연합방위 활동, 군사시설 건설, 연합방위 증강산업, 駐韓美軍 韓國人 雇傭員 人件費 一部支援 등이다.

특히 人件費 支援은 1991年 2月 주둔군 지원협정(SOFA)에 관한 특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법적인 근거가 되었고, 현재 韓·美 兩國은 防衛費 分擔의 중요성을 상호 인식하고 防衛費 分擔事業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동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韓國이 主權과 平等은 더 많이 획득하는 대신에 美國이 요구하는 防衛費 分擔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韓國을 對北韓 억지력에 보탬이 되는 범위내에서 미군의 주둔과 정비 및 기타 병참지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그 테두리를 넘어서 美國의 범세계 및 지역적인 役割에 대해서는 군비를 부담하는 것을 될 수 있는 한 삼가야 할 것이다.⁶⁴⁾

韓國의 防衛費 分擔은 장차 費用分擔의 增額과 더불어 役割分擔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따라서 韓國은 경제력에 걸맞는 대처가 요구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지역에서의 역할 부담은 피하고 CDIP와 같은 분야의 협력을 통하여 韓·美 聯合防衛態勢를 強化해야 할 것이다. 또 防産技術의 移轉을 통해 종래 駐韓美軍이 韓半島에서 對北韓 억지차원에서 수행해 온 역할의 대체를 통해 자주국방 확립에 주력하여 앞으로 있을 駐韓美軍의 減縮 및 撤收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안보종합 정세를 담당하는 기구의 설치 등 제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방위비 부담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결국 防衛費 分擔이라는 概念을 엄밀한 의미에서 공정한 분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安保協力 體制의 強化를 위한 정치적 협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韓·美 安保關係의 핵심적 과제가 될 防衛費 分擔 問題에 있어서 장기적 목표와 원칙의 합의 속에서 동맹체제의 강화라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韓國은 이러한 동맹체제의 강화를 통해 美國의 離脫政策에 따른 힘의 공백을 대체하고 自主國防體制 確立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⁶⁵⁾

64) 안병준, 「強大國關係와 韓半島 安保論」(서울: 法文社, 1989), p.501.

65) 이계대, “韓·美安保協力 再調整에 관한 研究”(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0), pp.84~85.

第 5 章 駐韓美軍과 核 問題

駐韓美軍이 수행하고 있는 韓半島 戰爭抑止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유지 기능은兵力 및 裝備 등 駐韓美軍 駐屯 그 자체에 의한 억제도 있을 수 있지만, 韓半島에 配置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核武器 역시 중요한 억지수단의 하나인 것이다.

核武器는 戰爭을 억지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인 동시에 2차대전 당시 美國의 日本에 대한 核攻撃 결과가 보여주었듯이 인류에게 최대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전세계의 모든 나라가 核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最近들어 駐韓美軍의 核 配置 및 撤收 問題와 北韓의 核 開發 問題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美國이 韓國에 核을 配置하고 있었다는 問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美國 政府는 NCND 정책에 의해 韓半島에 공식적으로 核 配置 問題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외의 첩보에 의해 美國이 1950年代부터 韓國에 核을 配置했다가 最近에 撤收한 것으로 전해지며, 최근 노태우 大統領은 韓國內에 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5章에서는 韓國과 核環境, 駐韓美軍과 核, 北韓의 核 開發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第 1 節 韓國과 核 環境

戰爭抑止力으로서의 駐韓美軍이 갖는 意味는 美 地上軍의 주둔, 戰術核 配置, 南・北韓의 軍事力 均衡을 유지시키는 戰爭 抑止力 요인으로서 美 軍事力이 주둔해왔다는 것과 연합사령관의 作戰統制權 등이 있다.⁶⁶⁾

韓半島와 核武器의 최초의 관계는 2차대전 이후 냉전이 열전하였던 韓國戰爭 이후부터 이미 깊은 관련을 갖게 되었다. 사실상 韓半島는 韓國戰爭 직후부터 非核地帶化가 진행되었다. 그 몇가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전개되었다.

韓半島와 核武器와의 최초의 관계는 中共의 韓國戰爭 介入에서 비롯되었다. 最近

66) 이기택, 「韓半島 統一과 國際政治」(서울 : 도서출판 삼영, 1991), pp.49~50.

에 배포된 美國의 외교문서에 의하면 韓半島에서의 核武器 使用問題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50年 11月 4日 中共軍의 韓半島 介入에 대한 대응책으로 논의하면서 부터였다.⁶⁷⁾

그러나 원폭을 使用하여도 군사적으로 결정적인 요인이 지속한다고 판단하고 원폭의 使用은 결국 소련의 참전을 야기시킬 것이며 아시아인을 美國에 대항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⁶⁸⁾

韓國戰爭을 계기로 한 美國의 核 使用 問題는 후에 韓半島에 美國이 核을 導入한다는 단계로 戰略的이며 戰術的인 配置에 이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韓半島에서의 냉전이 열전으로 화한 것이 韓半島에 美國의 核이 도입되는 냉전적 사유가 되었다. 韓國戰爭을 계기로 해서 韓國에 戰術的인 核 配置가 시작되었으며 이의 중요성은 韓國戰爭은 核의 使用問題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했었다면 韓國戰爭 이후에는 核의 韓半島 配置라는 중요한 韓半島의 核 環境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의 核이 어떠한 경로와 정확히 언제 配置되었는가 하는 問題는 근거있는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은 美國政府가 核의 配置와 使用問題에 대하여서는 항상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태도 때문에 더욱 알기 힘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美國은 美國의 核武器 導入, 配置, 使用問題에 대해서는 맥 마흔법에 의하여 美國의 最高 政策 決定者 외에는 즉, 美國의 大統領 이외에는 전세계에 있는 美國의 核의 配置와 使用에 대하여는 언급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韓半島에로의 導入된 核에 대해서도 항상 추측의 정보나 보도에 의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韓半島에 核이 도입되는 問題와 核과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韓半島의 核 環境이 조성되는 것은 역시 韓國戰爭을 기점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트루만 大統領의 核 使用에 대한 발언을 시점으로 하여 종전 직후부터 核이 도입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67) 이기택, 「韓半島 政治와 軍事」(서울 : 일신사, 1990), p.42.

68) 「中央日報」1992年 4月 24日 字 참조

따라서 韓半島에 核이 도입되고 配置되며, 이의 使用 問題와 관련하는 韓半島와 核 問題의 始發點을 韓國戰爭의 軍事적인 성격과 國際정치상의 성격에서 도입되었던 것이며, 韓國戰爭 직후부터 특히 휴전회담 직후 종전을 계기로 하여 南·北韓간의 軍事 均衡을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核이 도입되고, 韓半島와 核이 관련하게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韓半島의 核化는 韓國戰爭이 그 기점이었으며, 美國의 아시아에서의 大륙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⁶⁹⁾

韓半島와 核 環境이라는 기본적인 배경을 기초로 하여 美國의 대한 核 政策과 駐韓美軍의 核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第 2 節 駐韓美軍과 核

美國의 對韓 核政策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즉, 그 하나는 美國의 韓國의 對韓 자기내의 核 配置나 使用 또는 특히 核彈頭의 撤收 등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核 撤收를 중심으로 한 核 撤收에 관한 對韓政策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변화하는 對韓 核 政策의 원칙이 무엇이었는가를 논의할 수 있다.

둘째는 韓國 자체의 核 努力에 대한 美國에 對韓 核 政策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韓國의 평화적인 核 努力을 포함하여 美國의 韓國의 軍事적인 核 努力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는 일인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서 美國의 南韓 주둔 戰術核은 南·北韓의 軍事 均衡에서 주요한 전쟁 억지라는 역할을 해왔다. 북괴는 그의 軍事전개에 있어서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북괴의 이러한 전략적 우세라는 軍事적 태세와 선제공격이라는 軍事를 使用하는 방법에서의 공격적인 성격을 북괴군이 완전하게 띠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상쇄할 軍事전략이나 이를 억지할 軍事방법으로서 戰術核이라는 것이 南·北韓 軍事力중에서 중요한 戰爭抑止(Deterrence)라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북괴의 재래식 선제공격이라는 軍事적인 성격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수세하는 형식의 軍事전쟁 방식을 상쇄할 수 있는 유력한 軍事방식이 다름 아닌 韓半島에

69) 이기택, 「韓半島의 政治와 軍事」 (서울 : 일신사, 1990), p.434.

전개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美國의 戰術核이었던 것이다. 戰術核은 원자지뢰, 155밀리포, 유도탄, 팬텀기 등으로 운반하게 되는 형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韓國에 있는 美軍 戰術核의 撤收는 두 단계를 거쳐서 撤收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두 단계라 함은 첫째, 2차 撤收는 형식상 美 地上軍 撤收時에 육군용을 撤收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78年 8月경의 '韓半島 軍事情勢 및 美 첩보기관의 美 議會의 포괄적인 비밀 보고서에서 그와 같은 撤收計劃이 통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⁷⁰⁾

이러한 美 戰術核의 撤收에 대한 대안으로 유사시에 核 미사일을 도입할 수 있다는 군사적인 표시로서 랜스미사일을 들 수 있다. 91年 10月 美國의 부시 大統領은 韓國에서의 戰術核 撤收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노태우 大統領도 韓國에 더 이상 核이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하였다. 韓國에서 美國의 核이 撤收하였지만 美國의 核우산은 계속될 것이라는 美國의 발표가 있었으나 韓半島에 戰術核이 配置되었던 때와 동일하게 核우산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駐韓美軍의 核이 韓半島로부터 완전 撤收했음에 반하여 北韓은 核 開發을 강력하게 推進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問題와 核 開發 抑止方案을 論하기로 한다.

第3節 北韓의 核 開發

北韓의 核 開發 問題를 놓고 最近 국제적인 압력과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은 北韓의 核 開發 問題는 특히 걸프전 이후 제기되고 있다. 국제질서, 즉 새로운 세계질서(New World Order)라는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北韓이 주장해 온 '韓半島 非核地帶化'라는 것과 극히 대조적인 성격을 띠면서 北韓의 核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세계질서라는 관점에서 걸프戰爭의 목적중의 하나가 이라크의 核 支援施設을 파괴하는 데 있었다고 한다면, 자유세계 앞에서 소련이 굴복한 이후 제3세계의 核 問題가 중요한 국제질서의 問題로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걸프戰爭 이후 北韓의 核 問題가 중요한 국제질서의 問題로

70) 이기택, 前揭書, p.443.

제기된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⁷¹⁾

北韓의 開發과 核 擴散이 동아시아에서 깊은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일본이 국제적인 지위에 변화를 초래할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北韓의 核 問題는 극동전반에 걸치는 중요한 問題가 된다.

北韓의 核 問題는 南·北韓 關係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北韓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北韓의 核 問題를 南韓내 美國의 核 配置 및 撤收問題와 연결시키고 있다. 또한 거듭되고 있는 美國의 核 問題와 北韓의 核 問題는 ‘연계될 수 없다’는 美國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美國의 核 問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⁷²⁾

北韓이 실제로 核 能力을 갖겠다는 의도(Intention)를 표명한 적이 있다. 1990年 9月 北韓은 “소련이 韓國을 승인하게 될 경우 우리와 오랫동안 의존해 온 소련과의 동맹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무장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고 한 것이다.⁷³⁾

北韓의 核 政策과 이의 실천은 最近에야 北韓의 核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시기적으로 오래되었다.

1959年 9月 ‘朝·蘇 原子力 協定’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1964년에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하였고, 이어서 김일성대학과 김책공업대학에 核 研究部門을 창설하였다. 이는 核 分野의 研究員을 北韓內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70年代 初에 영변 원자력 발전소를 확장하였고, 1979년경부터 다시 연구소를 확장하면서 오늘날 問題가 되고 있는 ‘제2원자로’의 건설을 이미 시작한 것이다.

이후 1980年 10月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6차대회의 연설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교시를 내렸다. 이것으로 인해 北韓이 자신의 核 政策을 외부에 노출시킨 공식석상에서의 최초의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71) 이기택, 「韓半島 統一과 國際政治」(서울 : 도서출판 삼영), p.286.

72) 이기택, 上揭書, p.287.

73) Andrew Mack, “North Korea and the Bomb,” Foreign Policy, No.82(Spring 1991), p. 87 ; 이기택, 前揭書, p.288에서 再引用

그후 北韓은 86年 11月, 원자력 공업성을 신설하고 원자력 관계 임무를 행정적으로 총괄하게 되었다. 이는 北韓이 원자력 정책을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정체계라고 할 수 있다.⁷⁴⁾

核 問題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에서 北韓과 國際原子力機構(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관계는 깊다고 할 수 있다. 北韓이 核 問題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기본에서 國際原子力機構의 관계는 1974年 이 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어 1977년도에 원자로에 대한 核 問題 安全措置協定을 체결했다. 그리고 1979年 12月에는 극동지구 대표 이사국으로 피선(임기 2年)되기도 하였으며, 그후 꾸준히 적극적으로 國際原子力機構에 대한 협력관계를 진행시켜 왔다. 또한 北韓은 國際原子力機構가 주최한 각종 기술연수 또는 회의에 참가하여 기술습득에 노력하여 왔다.

北韓의 核 開發 努力과 그 진전 속에서 最近 北韓 核 問題는 강력하게 군사적이며 정치적인 問題로서 제기되고 있다. 北韓의 核 問題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北韓의 核 政策이 '平和的' 목적에서 '軍事的'인 목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北韓은 1992年 6月 이내로 核武器 開發을 완료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北韓의 核 計劃이 갖는 政治的, 戰略的 의미를 보기로 한다.⁷⁵⁾

첫째, 北韓이 核 政策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동기는 北韓政治의 안정보장 정책에 서 기인한다고 본다.

둘째, 北韓의 核 政策은 김일성 이후의 體制維持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김일성 이후 北韓의 體制를 유지할 수 있는 당의 방법은 군사체제를 확고히 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北韓은 기본적 정책의 하나인 對美接近 政策에 이어서 核 政策을 기반으로 對美 接觸으로 전환시켜 가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北韓의 核 政策이 韓半島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고 본다. 北韓의 核 정

74) 이기택, 前揭書, pp.291~295.

75) 송영선, "韓半島의 核," 「新東亞」(1991. 6); 송영선, "韓·美간 核秘密 約束," 「月刊朝鮮」(1991. 5); 정천구, "韓半島 核論爭의 核心," 「月刊朝鮮」(1991. 6); Andrew Mack "North Korea and Bomb", Foreign policy, No.82(Spring 1991), p.87.; 이기택, 前揭書, p. 295에서 再引用

책을 지지해 온 蘇聯이 몰락되었으며 中國과 日本의 반응은 냉담하다는 것이다. 南韓에서 이미 駐韓美軍의 核이 撤收되었으나 北韓의 核開發 拋棄宣言이 없었으며, 核査察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과 아울러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韓半島 非核地帶化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6共和國 政府의 안전보장 정책은 북방정책을 통한 측면적인 안전보장 이외에 다른 특징도 없으며 北韓이 核을 개발할 경우 韓國의 안전보장 정책은 많은 問題點에 직면하게 될 것이 틀림 없다.

北韓의 核開發에 관련하여 현재의 큰 이슈는 核開發 포기와 국제원자력 기구의 核査察이라고 볼 수 있다. 美·日·獨의 核開發 억제 압력정책과는 달리 중국은 北韓의 核開發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은 91年 11月 北韓의 核査察 問題를 언급하면서 中國도 核武器가 韓半島에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이 問題는 南·北韓 당사자들이 해결하기를 원하며, 국제적인 압력이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美·蘇·日과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⁷⁶⁾

강대국들은 北韓 核開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외교적 압력과 경제제제, 군사적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경제제제 조치는 北韓의 經濟가 자급자족 체제이기 때문에 효과가 적을 것이며, 군사적 조치는 대남전면전 도발의 위험을 유발한다는 면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北韓의 核開發 전지를 위한 서방측의 노력은 무력공격보다는 외교적 노력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第 4 節 韓半島의 非核化

韓半島의 非核化(Denuclearization)는 韓半島를 둘러싼 강대국 및 南·北韓간에 계속 논란이 되어 왔으며, 韓半島에서 駐韓美軍의 核 配置 문제와 北韓의 核開發을 연관시켜 볼 때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것이다.

駐韓美軍의 撤收라는 문제에 있어서 撤收의 本質은 기본적으로 核 政策과도 깊은 관련을 갖게 되는 것이다. 韓國戰爭을 기점으로 美國은 전 세계적인 군사전략하에

76) 「朝鮮日報」1991年 11月 2日 字 참조

남한을 포함시켰으며, 그 상징이 韓國에 도입되어 配置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진 美國의 戰術核이었다. 撤收한다고 할 때 그 본질적인 의미는 철군의 밑바닥에 있는 핵의 撤收가 그 본질이며, 군사적으로는 美國의 戰術核의 점차적인 撤收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美軍의 核 撤收라는 본질을 지닌 美軍 撤收라는 것은 중국적으로 韓半島의 非核化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 그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韓半島의 非核化가 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군사적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韓半島의 非核化가 초래하는 정치적인 의미인 것이다.⁷⁷⁾

첫째,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韓半島의 非核化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美國이 냉전체제하에서 韓半島를 美國의 범세계적인 군사전략상에서 美國의 세계적인 전략하에 두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南韓에 핵을 도입하였다. 美軍의 撤收라는 과정을 통하여 美軍의 핵도 점차적으로 撤收한다는 것은 최소한 南韓을 美國의 핵전략하에서부터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韓半島의 非核化의 정치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비핵지대화(Denuclearized Zone)라는 문제는 비핵지역이라는 각도에서 앞으로 韓半島의 국제정치상의 지위와도 관련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핵 분리 정책(Disengagement Policy)이라는 핵 政策은 기본적으로 중부 유럽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다. 즉 동·서독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핵 대결을 기피하기 위해서 美·蘇간에 핵을 분리함으로써 東·西獨을 非核化시킴과 동시에 중부 유럽을 非核化함으로써 긴장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며, 이것이 중부 유럽이 아닌 극동에서 美·中共간에 핵 分離를 통해서 실천되고 있는 韓半島를 중심으로 한 비핵지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먼 장래를 볼 때에 많은 요인의 변화를 전제하거나 南·北韓 관계의 변화를 전제하면서 韓半島의 중립화라는 정치적인 개념을 낳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南·北韓 고위급회담에서는 南·北 不可侵, 非核地帶化, 南·北交流의 3원칙이 합의되었다. 또한 노태우 大統領은 1991年 11月 8일 '韓半島의 非核과 平和構築을 위

77) 이기택, 「韓半島의 政治와 軍事」(서울 : 일신사, 1990), pp.434~439.

한 宣言'을 발표했다. 그 선언골자는 다음과 같다.⁷⁸⁾

첫째, 核에너지를 평화적인 목적에 使用하며, 武器製造, 保有 貯藏, 配置 使用하지 않는다.

둘째, '核武器의 확산방지에 관한 조약'과 이에 따라 國際原子力機構와 체결한 核安全協定을 존중하며, 韓國內에 核 施設과 核 物質은 철저한 국제사찰을 받도록 하며, 核 燃料 再處理 및 核 濃縮施設을 보유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는 核武器와 무차별 살상무기가 없고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화학·생물무기의 절대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며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이제 北韓이 國際查察을 피하며 核武器를 개발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北韓은 韓國과 함께 核 再處理와 농축 시설의 보유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韓國의 非核化선언은 핵무기의 반입과 반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美國의 육상, 해상 配置 戰術核이 撤收하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한 미 공군 핵 탑재기가 美國의 핵우산을 계속 제공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北韓의 비핵지대화가 核 통행의 전면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논리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⁷⁹⁾

北韓은 國際原子力機構의 核 查察을 받겠다고 발표했으며, 國際原子力機構는 영변지구 核 施設에 대하여 特別 核 查察을 실시할 방침이나 北韓이 核 查察을 받으면서 核武器 開發을 진행하는 '제2의 이라크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北韓이 國際原子力機構의 特別 核 查察을 거부할 경우 92年 6月 15日부터 이사회를 열어 이에 대응토록 협의하였다.

國際原子力機構의 特別 核 查察은 核 協定查察協定 체결국의 신고가 없어도 國際原子力機構가 查察을 할 수 있는 제도이나 지금까지는 그 실행의 전례가 없어 北韓에 特別 核 查察을 실시할 경우 國際原子力機構의 최초의 特別 核 查察이 된다. 北韓과 國際原子力機構의 核 查察協定은 1992年 4月 10日부터 발효되었다.⁸⁰⁾

78) 「東亞日報」1991年 11月 8日 字 참조

79) 김주목, “駐韓美軍 위 役割變化 研究”(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pp.54~55.

80) 「朝鮮日報」1992年 4月 20日 字 참조

그러나 北韓은 먼저 아직 核武器 開發을 중단하겠다고 확고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적인 외교, 군사적인 노력을 동원해서 北韓의 核武器 開發 포기에 관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第 6 章 結 論

世界는 급변하고 있다. 東歐와 蘇聯이 共產主義를 포기하고 蘇聯은 聯合을 解體하고 독립국가가 구성되었다.

한 나라의 安保는 國家의 存立과 國民의 生存과 직결된다. 과거에 安保의 政策에 대한 부분적인 오해가 있어 온 것도 사실이나 국가의 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國家의 發展이나 經濟의 成長도 安保의 뒷받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의 외교는 주로 美國과의 관계에 주력하였으며, 韓·美 安保協力 관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韓·美 關係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우리의 南·北分斷의 아픔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는 3년간의 美軍의 軍정을 받았으며, 6·25가 발생하자 韓·美軍은 유엔의 깃발 아래 共產주의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같이 싸웠다. 그 후 세계적인 냉전의 틀 속에서 남·북은 계속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韓·美는 '안보'라는 공통분모하에 동맹관계를 맺어왔다.

駐韓美軍의 주둔은 우리에게서 전투력 그 자체보다도 강대국의 전력이 주둔함으로써 북괴의 남침을 방지할 수 있는 戰爭 抑制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美國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동북아시아에서 美·中·蘇간의 勢力均衡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유지되었으나 반면 강대국 군대의 장기 주둔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군사적으로 끼친 영향도 크다.

本文에서 서술한대로 韓國軍에 대한 作戰統制權 移讓 問題, 駐韓美軍 撤收 및 防衛費 分擔, 核 問題 등 해결해야 할 韓·美 軍事懸案을 많이 갖고 있다.

作戰統制權은 韓·美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먼저 平時 作戰統制權부터 인수하고 합참의 전쟁기획 및 작전지휘 능력 향상, 전시전환체제 확립 및 지휘통제·통신 및 정보(C³I)체제 등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戰時 作戰統制權을 인수하여 명실

공히 主權國家로서 우리 國軍을 자주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駐韓美軍 撤收는 美國의 정책과 동북아지역에 대한 군사전략, 美國內의 輿論 등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행사된 적은 없다. 따라서 駐韓美軍은 美國의 국가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撤收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군의 자주국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駐韓美軍 감축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방위비 분담 문제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에서 韓·美간에 합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駐韓美軍의 核을 韓半島에서 완전히 撤收했다고 발표되었으나 北韓의 核 開發은 정치, 외교, 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중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되도록 군사적인 정책보다는 정치·외교적인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이며 세계전략적 측면에서 美軍의 주둔이 지속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韓國軍에 대한 作戰統制權을 우리가 가져야 하며 우리나라에 관한 의사결정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다.

問題는 韓·美간의 安保懸案을 해결해야 하는 데 있어 일시적, 감정적인 처리보다는 큰 안목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위해서 제일 바람직한 방법인가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우리의 국익에 부합됨은 물론 지속적인 국가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지구상에 3대 분단국가로 남아 있던 越南은 75年 공산화됨과 동시에 통일되었고, 현재는 시장경제 및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2차대전후 분단되었던 독일도 이미 통일되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 중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의 지상목표는 민족통일, 국토통일이다. 91年 9月 南·北韓은 각각 다른 국기를 앞세워 유엔에 가입하였다.

韓·美關係에서 우리는 실제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美國은 문자 그대로 지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韓·美 安保協力 關係도 현재는 물론 통일을 전제로 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한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國 文

가. 單行本

- 강성철. 「駐韓美軍」. 서울 : 일송정, 1988.
- 구영록·배영수. 「韓·美關係」. 서울 : 서울대학교 美國學研究所, 1982.
- 구영록 외. 「韓國과 美國-100年과 그 이후」. 서울 : 서울대 출판부, 1983.
- 구영록. 「韓國과 美國 : 過去·現在·未來」. 서울 : 박영사, 1984.
- 國防部. 「韓半島 및 東北亞 軍事情勢 자료집 1988. 4-1989. 3」. 서울 : 國防部, 1989.
- 國防部. 「韓半島 및 東北亞 軍事情勢 자료집 1989. 4-1990. 3」. 서울 : 國防部, 1990.
- 김달중 외. 「蘇聯의 改革政治」. 서울 : 법문사, 1991.
- 김양명. 「韓國 戰爭史」. 서울 : 일신사, 1987.
- 김학준. 「韓國問題와 國際政治」. 서울 : 박영사, 1990.
- 東亞日報社(편). 「徹底分析 駐韓美軍」. 서울 : 東亞日報社, 1991.
- 박준홍(편). 「韓半島의 平和와 安保」. 서울 : 박영사, 1983.
- 서울신문사(편). 「駐韓美軍 30年」. 서울 : 행림출판사, 1978.
- 서정갑. 「부조화의 政治 : 美國의 經驗」. 서울 : 법문사, 1989.
- 안병준. 「強大國 關係와 韓半島 安保論」. 서울 : 법문사, 1989.
- 안병준. 「中共政治外交論」. 서울 : 박영사, 1986.
- 外交安保研究員. 「國際情勢와 韓國外交 - 1985年度 年例報告」. 서울 : 外務部, 1986.
- 外務部. 「外交白書 1990」. 서울 : 外務部, 1990.
- _____. 「對韓美國 外交年表 1989」. 서울 : 外務部, 1990.
- _____. 「韓國外交理論 : 1948-1988」. 서울 : 外務部, 1990.
- 이기택. 「韓半島의 政治와 軍事」. 서울 : 일신사, 1990.
- _____. 「韓半島 統一과 國際政治」. 서울 : 도서출판 삼영, 1991.

- _____ . 「韓半島와 國際政治」. 서울 : 일신사, 1988.
- _____ . 「現代 國際政治」. 자료선집(편저). 서울 : 일신사, 1986.
- _____ . 「韓·美·日·中 安保協力增進方案」. 서울 : 韓國國防研究院, 1989.
- 이기원. 「軍事戰略論」. 서울 : 동양문화사, 1982.
- 이상우. 「韓國의 安保環境 第 2輯」. 서울 :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8.
- 이종학. 「現代戰略論」. 서울 : 박영사, 1972.
- 日本陸戰史研究普及會(陸軍本部). 「韓國戰爭」. 서울 : 명성출판사, 1986.
- 정구현·김달중 외. 「東歐의 改革과 韓國과의 經濟協力」. 서울 : 법문사
1991.
- 정용석. 「美國의 對韓政策」. 서울 : 일조각, 1979.
- 정일권. 「전쟁과 휴전」. 서울 : 東亞日報社, 1986.
- 정종욱 외. 「美國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울 : 韓國放送事業團, 1989.
- 정진위. 「북방 삼각관계」. 서울 : 법문사, 1985.
- 최 영. 「現代 核戰略 理論」. 서울 : 일지사, 1987.
- 하영선. 「韓半島 核武器와 世界秩序」. 서울 : 도서출판 나남, 1991.
- 韓國國防研究院. 「신데탕트와 韓國의 安保」. 서울 : 韓國國防研究院, 1990.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美修交 1세기의 회고와 전망」. 성남 : 韓國精神文
化研究院, 1983.
- 現代社會研究所. 「韓·美關係의 實際와 展望—반미주의의 역학」. 성남 : 現
代社會研究所, 1989.
- 國防大學院(편). 「駐韓美軍에 관한 研究」. 서울 : 공화출판문화사, 1976.
- 韓·美聯合軍司令部. 「역사적으로 본 美國」. 서울 : 韓·美聯合軍司令部,
1988.
- 韓國戰略問題研究所. 「90年代를 향한 駐韓美軍의 재조명」. 서울 : 韓國戰略
問題研究所, 1990.
- 황동준 외. 「美國의 對韓 安保支援 平價와 韓·美防衛協力 展望」. 서울 : 민
영사, 1990.

나. 論文 및 定期 刊行物

- 김광휘. “安保·統一問題와 駐韓美軍의 位相”. 「現代公論」. 서울 : 정문연구회, 1989.
- 김주목. “駐韓美軍의 役割變化 研究”. 碩士學位論文. 연세대학교 行政大學院, 1991.
- 김달중. “作戰統制權 確立”. 「2000년대의 이상적 국방체계」. 연구보고서. 서울 : KIDA, 1987.
- 남주홍. “美軍撤收와 南·北韓 軍縮. 懸案과 課題”. 「신동아」 90년 6월호. 東亞日報社, pp.468~479.
- 박선섭. “作戰統制權에 대한 올바른 理解”. 「安保環境과 軍事協力」. 서울 : 韓國國防研究院, 1990.
- 박용욱. “韓·美軍事關係 : 현 위치 당면과제 및 전망”. 「국방연구」. 서울 : 國防大學院, 1988.
- 박창권. “駐韓美軍의 戰爭抑制機能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1989.
- 백종천. 이민룡 공저. “駐韓美軍에 대한 韓國의 立場”. 「韓國軍의 새위상 정립」. 서울 : 육사 화랑대 연구소, 1990.
- 서정갑. “韓·美關係의 政治的 側面” 「사회과학논문집」 제9집. 연세대학교, 1978.
- 안기석·최성웅. “駐韓美軍 40年”. 「신동아」. 東亞日報社, 1988
- 이계대. “韓·美安保協力 再調整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연세대학교 行政大學院, 1990.
- 이달희. “韓·美 防衛費 分擔의 現況과 展望”. 「國際政勢」. 서울 : 國際學術院, 1990.
- 이기택. “美·蘇의 데탕트와 韓半島”. 「국회보」. 서울 : 국회사무소, 1989.
- _____. “駐韓美軍 關係와 國防費 分擔”. 「總力安保」. 서울 : 재향군인회, 1988.

- _____ . “韓・美軍同盟과 駐韓美軍의 問題”. 「자유공론」, 서울 : 韓國反共聯盟, 1987.
- 이상우. “韓・美關係의 安保的 側面”. 「사회과학논문집」 제9집. 연세대학교, 1978.
- _____ . “相互便宜에 의한 打算的 基礎-韓・美關係의 軍事的 基礎”. 「한미 수교 1세기의 회고와 전망」, 성남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 이원우. “韓・美安保 關係의 爭點과 未來”.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行政大學院, 1989.
- 이재천. “駐韓美軍의 戰略的 價値에 대한 美國論據의 變化”. 碩士學位論文. 고려대학교, 1983.
- 온창일. “美國의 對韓安保 介入의 基本姿勢. 1945~1953”. 「國際政治論叢」 제25집. 1985.
- 조희식. “韓國安保에 대한 駐韓美軍의 役割”. 碩士學位論文. 연세대학교 行政大學院, 1989.
- 정춘일. “防衛費 分擔 무엇이 문제인가(上). (下)”. 「호국」 제16권. 서울 : 國防部, 1989.
- 차영구. “駐韓美軍의 役割과 將來”. 정종욱 외. 「美國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울 : 韓國放送事業團, 1989.
- _____ “韓・美軍事關係의 將來(I)”. 「신데탕트와 韓半島」, 서울 : 韓國國防研究院, 1990.
- 최희봉. “카터 미 대통령의 人權政策과 對韓關係”.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83.
- 최승주. “駐韓美軍과 作戰統制權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연세대학교 行政大學院, 1991.
- 하영선. “韓半島 平和定着과 駐韓美軍”. 「전망」, 서울 : 사회발전연구소, 1988.

1. 영문 자료

가. 單行本

- Armed forces Staff College. The Joint Staff Officers Guide. AFSC PUB1, Norfolk VA, US Armed Forces Staff College, 1991.
- Brewer, Thomas L. American Foreign Policy : A Contemporary Introduction. Second Edition :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86.
- Brooks, Leo A. "A Study of United States Military Forces Structure in the Republic of Korea". University of Oklahoma, 1990.
- Carpenter, William C. The maintenance of U.S. Force in Korea. Stanford : Research Institution, 1975.
- Carter, Jimmy. Keeping Faith. New York : A Batan Book, 1982.
- Clough, Ralph N. Deterrence and Defence in Korea : The Role of U.S. Forces.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s, 1978.
- Detrio, Recharad To. Strategic Partners :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1989.
- Fehrenbach, T.R. This kind of war.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63.
- Finley, P. Finley.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 In the Vanguard of ROK-US Relations. Seoul : HQs USFK, 1983.
- HQs Department of the Army. FM 101-5 : Staff Organization and Operations.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 Kennan, George. The Cloud of Danger. Boston : Atlantic Monthly Press Book, 1973.
- Kissinger, Henry A.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 Alfred Knopf, 1973.
- Lee, Suk-Bok. The Impact of US Forces in Korea.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1987.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5th Edition. New York : Alfred Knopf, 1973.

Rhee, Tae-Hyung. US-ROK Combined Operations-A Korean Perspective. Washington D.C.:National Defense University, 1986.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egion : Looking forward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 Department of Defense, 1990.

4. 論文 및 定期 刊行物

Carlucci, Frank C. Annual Report to the Congress Fiscal Year 1990.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9.

Cha, Young-koo. "US Forces in Korea : It's Role and Future". CSIS/KID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Future of ROK-US Security Relations. Seoul : KIDA, 1988.

Cheney, Dick. Annual Report to the Congress Fiscal Year 1991.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Clough, Ralph N. "The Soviet Union and the Two Koreas". Soviet Union in East Asia.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82.

Kwak, Tae-hwan. "The Reduction of US Force in Korea Interkorean peace proces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 No.2 Winter, 1990.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1~1992.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London, 1991.

Oh, Kwanchi. "Some thoughts on ROK-US Alliance and Burdensharing". CSIS/KID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Future of ROK-US Security Relations. Seoul : KIDA, 1988.

Riscassi, Robert W. "The Winds of Change and the Two Korea". Army : 1990~1991 Green Book. Vol. 40 No. 10, October 1990.

Weinberger, Casper W. Annual Report to the Congress Fiscal year 1987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7.

다. 其 他

國防部. 「國防白書 1988」. 서울 : 國防部, 1988.

_____ . 「國防白書 1989」. 서울 : 國防部, 1989.

_____ . 「國防白書 1990」. 서울 : 國防部, 1990.

_____ . 「國防白書 1991」. 서울 : 國防部, 1991.

_____ . 「防衛費 分擔 1989」. 서울 : 國防部, 1988.

_____ . 「國防條約集」. 서울 : 國防部, 1982.

「東亞日報」. 1988~1992. 4.

「朝鮮日報」. 1988~1992. 4.

「中央日報」. 1988~1992. 4.

「韓國日報」. 1988~1992. 4.

「Stars and Stripes」. 1988 - APR 1992.